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오픈!

교정분야 데이터의 접근성을 확대합니다!

교정공무원 및 수용자 현황 등 교정행정분야 주요 통계를
매달 자동으로 업데이트해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교정

vol.587.
2025. April

04

D
r
e
a
m

Contents

vol.587_2025. April



아름다운 동행

04 함께하는 길

4월의 노래 아름다운 날들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前 교정본부장)

08 생각의 창

국민 모두가 교정본부를 응원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최효진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감

12 우리는 한마음

교정인의 삶이 그린 그림
퇴직 후의 시간을 채색하다
인터뷰 | 이존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 회원

교정 이야기

16 교정 이모저모

경북북부제3교, 여성수용동 운영으로
교정시설의 새로운 모델 다짐

22 교정 기관

단절의 역사에서 공존의 세계로:
도시 한가운데서 변화를 꿈꾸다
춘천교도소

28 교정과 사람들

의료수용동 재정비, 강한 팀워크와 빈틈없는
협력으로 수용자 건강 돌본다
춘천교도소 의료과

교정 아카이브

32 교정 포커스

우리나라 현대 행형의 성립(상)
금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前 안동교도소장)

52 교정 논문①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이에 따른 치료적 정책 제언(하)
김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교감

66 교정 논문②

성범죄자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효과분석(하)
김용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교감

82 교정 리포트

대마초 사용자들의 강성 마약류 사용과
중독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상)
유숙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교정 뉴스

92 교정본부 NEWS

94 교정기관 NEWS

101 모범 공무원

102 독자마당



COVER STORY

봄이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새싹이 움트고 꽃이 피어나듯, 우리 마음속에도 새로운 시작과 도전이 움트는 시기입니다.
교정 현장의 꿈은 단순한 바람이 아닌, 변화의 원동력이자 희망과 성장의 토대입니다.
수용자들은 꿈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며, 교정기관은 꿈을 품은 수용자들이 그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 공간인 까닭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곧 삶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지요, 우리 모두 그 가능성을 믿고 도우며, 응원하도록 합시다.

아래 QR 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웹진으로
이동합니다.



발행인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발행일 2025년 4월 8일 발행처 법무부 교정본부 주소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1동)
홈페이지 www.corrections.go.kr 페이스북 www.facebook.com/mojcor 네이버 블로그 blog.naver.com/mojcor
유튜브 www.youtube.com/@kcs_TV 카카오톡 story.kakao.com/ch/mojcor
다양한 온라인 채널에서 교정본부의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월의 노래 아름다운 날들



이태희
교정대상심사위원장
(前 교정본부장)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를 읽노라’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4월이 오면, 고교 시절 낭랑한 목소리로 ‘4월의 노래’를 읽어 주던 국어선생님이 문득문득 생각나곤 합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인지라 상대적으로 건조해져 있기 쉬운 학생들의 감성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듯했던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는, 마음을 깊게 파고드는 사랑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시 하나에 담기고, 시로 하여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사랑과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를 누누이 역설하던 선생님의 열정 탓에, 학생들의 반응 또한 덩달아 뜨겁기만 했습니다. 이미 등단한 시인이기도 했던 선생님의 이름은 ‘설성희’라고 시처럼 예뻐했으나, 그러나 남자에게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듯 해 키득거리기도 했었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선생님 왈, 자신의 시가 신문에 게재되기라도 하면 정작 시보다는 이름의 자구에 현혹된 못사내들의 구애 편지가 만만찮게 답지하여 곤혹스러웠노라고 토로하니, 교실 안이 한바탕 웃음으로 들쭉이곤 했었답니다.

또한 선생님은 말해 주었습니다. 행복은 멀리에 있지 않다고, 시를 읽는 마음이면 이미 행복해진 것이라고. 몸의 세포가 시가 주는 기쁨에 감응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인이 된 것이라고 말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청록집을 추천

하며 모두가 일독할 것을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청록집은 박목월·조지훈·박두진 등 이른바 청록파라 불린 3인의 시 39편이 수록된 시집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그 시집을 구입하여 여러 번 읽었던 터라 모종의 자부심에 하마터면 ‘읽어봤습니다’ 하고 손을 들 뻔도 했습니다. 자랑에 그냥 입이 근질거리는 것을 참아야만 했지요.

시에 대한 남다른 사유와 관심에는 그 연유가 있겠으니, 그 하나는 아주 어린 날 경험한 뜻밖의 칭찬에서 기인된 듯싶고, 다른 하나는 정호승이라는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의 오랜 과거와 시간을 함께하는 행운을 가졌었던 탓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이 꽃에 앉으니
내 마음이 짹짹합니다’

국민학교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한글에 입문할 수 있었던 시절의 1학년 2학기 때 적어 본 글입니다. 국어 시간을 맞아 갑자기 동시를 적어 보라는 선생님의 지시에 모두들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나는 창문 옆에 자리했던 터라 창밖의 화단이 쉽게 눈에 들어왔고, 눈에 담은 그 화단의 풍경을 직설적으로 적어 본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글로 인해 마치 용단폭격처럼 다가온 선생님들의 칭찬은 정녕 민망하고 당혹스럽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한글도 다 떼지 못한 1학년 짜리의 어디에서 저런 감성과 표현이 나올 수 있느냐’며 모두가 등을 두드려 주니, 일약 신동으로 거듭나기라도 한 듯한 처지가 다만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동기부여가 그렇듯 넘쳐났으니, 어쩔 나중엔 시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자라면서 마음에 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할 지경이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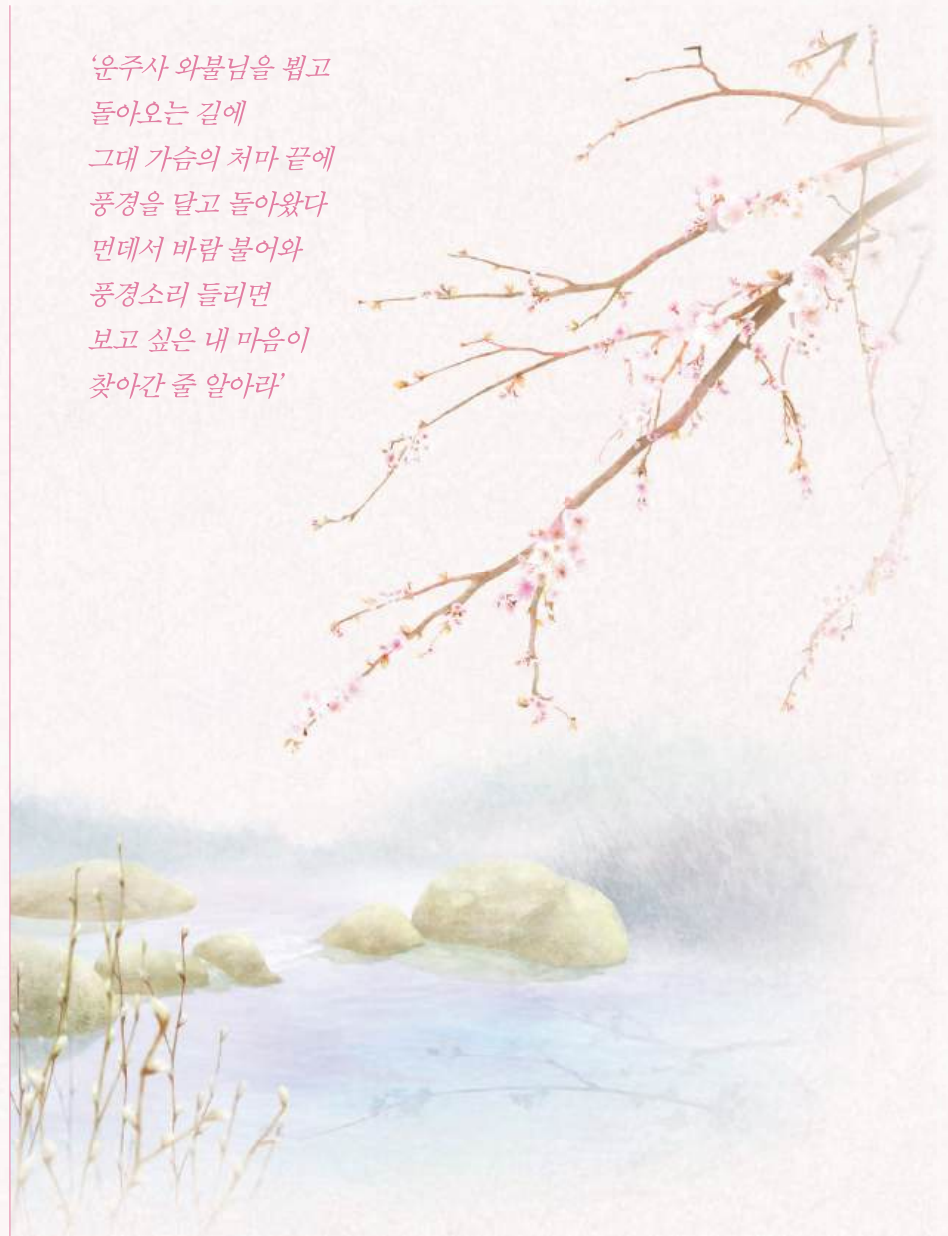
그러나 나는 결코 시인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아니 되겠다는 결단을 별다른 고민 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당시 '학원'지(誌)를 주름 잡고 있었던 정호승이란 선배이자 기린아였던 것입니다. 정호승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야만 그려지고 반짝일 수 있는 시어들은 정녕 범접할 수 없는 경이로움일 뿐이었습니다. 동일 계열의 중·고등학교에서 나는 중학생으로 그는 고등학생으로 각각 재학 중이었던 것입니다. 재빨리 시를 덮을 수 있었던 작심 덕분일까요. 해마다 교내 백일장 대회가 열리노라면 나는 산문으로 중등부 우수상을, 그 선배는 시로 고등부 우수상을 각각 수상하여 3,000여 명의 전교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란히 서서 교장 선생님과 악수를 나누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KBS 지방방송국 지하 전람실에서 개최·전시되었던 학교의 시화전에 그 선배의 시와 더불어 나의 시 한 편도 전시장 한쪽 귀퉁이에 자리할 수 있어서, 가슴 콩닥거리는 설렘으로 밤잠을 설친 날도 있었지요.

세월이 흘러 그 선배가 신춘문예에 해마다 동시와 시, 그리고 단편 소설 등에 입상·등단하는 것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으로나마 무한한 박수를 보내곤 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우뚝 선 그 선배를 운명처럼 조우할 수 있었을 때는 중학교 시절의 만남으로부터 이미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였습니다.

삶을 쫓아가는 등고선과 기지개쳐고 호흡하는 일상의 서식지를 전혀 달리했음에도 기적처럼 다시 이루어진 우리들의 해후는, 아무리 운명이란 게 신비한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라든 그보다도 필시 세상과 사물에 대한 그 선배의 특별하고 일관된 사랑과 배려가 있었기에 건져진 선물일 듯싶었습니다.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가석방심사위원들의 요청으로 일선 교정시설에서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준비토록 하였더니 선정된 시설이 공교롭게도 청주여자교도소였는데, 마침 위원회 개최일자에 다른 행사가 있다며 행사 시행여부에 대한 지시를 기다린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인가를 알아보았더니 재소자들의 심성순화를 위한 시낭송회였는데, 다름 아닌 정호승 선배가 텔런트 김혜자 씨 등과 더불어 그 시낭송회를 주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려 왔습니다. 행사를 그대로 시행토록 지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행사 당일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선배를 만났습니다. 세월의 오랜 간극을 메우기가 쉽지 않았으나, 기억의 문을 열고 추억 문은 시간들을 바쁘게 불러내었습니다. 마음은 온통 봄빛으로 자글거려 왔습니다. 시낭송회에 기꺼이 자원하여 정호승 선배의 시 한 편을 낭송하였습니다.

‘운주사 와불님을 뵈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의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시를 낭송하자니, 시간이라는 안개 속으로 흘러보낸 다른 길들의 아쉬움에 문득 가슴이 저려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한 삶의 걸음걸음마다 풀어가는 질문과 방정식이 어느 하나 귀하지 아니함이 없을 것을, 그 무엇도 더는 욕심이나 아쉬움으로 품을 일은 아닐 듯싶었습니다. 다만 시를 낭송하며 마주한, 절절한 사유를 담은 수많은 눈빛들에게, 내 낭송의 시어가 부디 치유와 평화의 언어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와 또 교정가족과 함께 사랑이라는 곡선을 만들어 간 그날의 만남과 행사는 마냥 즐겁기만 했습니다. 눈부시고도 아름다운 마음 잔치일 따름이었습니다.

국민 모두가 — 교정본부를 응원하는 그날을 기대하며



최효진
교정본부 교정기획과 교감

교정정책 홍보의 중요성

흔히들 정책의 성공은 ‘설계가 반, 홍보가 반’이라고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정책이용자와 국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모범 수용자가 민간기업에서 일반인과 함께 일하며 사회 적응 훈련을 받는 ‘희망센터(중간처우 시설)’를 개관한다고 상상해 보자. 만일 해당 기업체 임직원들이나 지역사회 등에서 이를 기꺼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교정본부와 기관의 노력은 허사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교정기관 이전·신설 등과 관련하여 오랫동안 표류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도 교정시설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교정행정에 영향을 미친 대표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정책의 추진에 언론, 지역사회를 비롯한 전 국민의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 없이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2025년 현재 정책홍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해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새로운 소통 플랫폼이 출현하여 일반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좋아요’, ‘싫어요’를 평가하기도 한다. 이제는 기존의 보도·설명자료 배포, 언론 취재답변 등 문자 그대로의 ‘언론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선제적·맞춤형 홍보가 필요한 시대이다.

그간 우리는 교정시설 집단감염이나 교도소 내 폭행 사건 등의 이슈가 순식간에 언론에 확산되어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는 것을 경험을 통해 봐 왔다. 물론 우리의 잘못이 있을 수 있지만 아흔아홉 가지의 매우 잘한 것이 단 한 가지 이슈로 묻혀버리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변화된 홍보환경이 반대로 그동안 교정기관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의도하지 않은 밀행성·폐쇄성 등을 극복하고 국민에게 자연스레 다가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교정본부의 정책성과 및 홍보노력

코로나19 이후, 최근 몇 년간 교정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다. 교정본부에는 마약사범재활팀, 특별점검팀, 빅데이터팀, 종합상황실 등 조직을 신설·개편하여 급변하는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있고, 충훈답 건립, 수당 신설, 복제 변경, 정상 4부제 확대 시행, 국립묘지 안장 관련 법안 발의 등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사기를 현실적으로 제고하였으며, 만렐라 소년학교 신설, 마약재활 전담교정시설 운영, 농촌 일손제공형 외부통근작업 도입, 희망센터 확대 등을 통해 수형자의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수용자의 인권보장과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 전국 교정시설의 환경개선, 거창구치소 신축, 대구교도소 이전, 경북제3교도소에 여성수용동을 설치·운영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러한 정책성과에 발맞춰 교정본부는 지난해 ‘교정정책의 국민소통 강화’를 목표로 정책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한 스킨십 강화형 홍보방식을 도입하였다. 홍보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교정캐릭터탈(보라미·보드미)을 각 지방청별로 제작·배포하고, 안양시·창원시·영월군 등 전국 지역축제에서 교도관 체험 및 교정홍보 부스를 운영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협의를 통해 옛 장흥교도소 복합공원 조성사업 내 교정역사관 구축을 지원하고 익산교도소 세트장* 리뉴얼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시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유명 유튜브(kiu기우썸 158만, 숏포러브 166만 등) 채널과의 협력을 통해 교정공무원 홍보영상을 제작·방송하고, 국가보훈부와의 협업으로 국립현충원 행사에 교정 홍보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복공무원 공익광고 영상을 방영하는 등 교정공무원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정립하였다.

* ‘7번방의 선물’, ‘내부자들’ 등 200여 편의 영화, 드라마가 촬영된 장소로 연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북 익산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임



제복근무자 공익광고 영상



익산교도소세탁장 내 홍보관



지역축제 시 교도관 체현, 직업소개 등 홍보부스 운영



더불어 교정본부는 과밀수용, 만성적 인력부족 등 현장의 어려움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주요 언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교정관련 정책기사(‘24년 8건)를 적극 기획보도하였다.

특히 직업적 애환과 고충을 넘어서 교정공무원의 역할과 교정행정의 필요성, 정책효과 등에 초점을 맞춰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자평한다.



‘24. 3. 15. 국민일보



‘24. 5. 10. 중앙일보



‘24. 9. 25. 한국일보



‘24. 10. 8. 중앙일보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위해

다행히 우리 교정의 홍보 여건은 그리 나쁘지 않은 것 같다.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정책성과가 있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구축된 훌륭한 언론 인프라가 있으며, 법무부 및 54개 교정기관 교정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형성된 법조계, 학계, 방송, 의료, 지역사회 각계 인사 등 수많은 영향력 있는 전문가 우군(友軍)들이 계신다. 또한 교정본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친구 등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SNS 플랫폼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홍보용으로 차고 넘치게 활용 가능한 교도작업 제품은 덩이다.

교정홍보는 교정기관에 대한 국민의 이미지를 좋게 함으로써 교정기관의 책무와 활동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교정시책과 활동에 반영함으로써 국민과 보다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박성수(2007), '조직-공중관계성이 교정기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34호, 159-179.-

위 ‘교정홍보’의 정의에 따르면, 교정홍보는 단순히 언론매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 이미지를 좋게 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에게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함께 공감하며, 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갖춰진 홍보 인프라, 교정본부의 노력 등도 필요하지만, 국민과 함께하는 교정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17,000여 명 교정공무원을 비롯한 수많은 퇴직 선배님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근무 여건이 녹록지 않고 여전히 개선할 점이 있지만, 그래도 교정이라는 목표를 향해 뚝뚝뚝뚝 나가고 있는 우리 조직을 따뜻하게 바라보며 교도관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외적으로 우리 조직을 대표하는 ‘교정홍보대사’라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자! 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열고 유튜브에 ‘교정본부TV’를 입력해 보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보자. 좋은 것은 나누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고 하니 가족과 지인들에게 권면해 보는 것은 어떨까. 국민 모두가 교정본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언젠가의 그날을 상상해 본다.

교정인의 삶이 그린 그림 퇴직 후의 시간을 채색하다

이존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 회원

INTERVIEW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전주지회(이하 전주지회)의 이존한 회원은 지난해 팔순을 넘겼다. 교정인으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한 1973년 이래 50여 년을 보낸 후, '투망하듯' 진실하고 성실하게 마주해 온 그 삶의 흔적은 그의 자택에 고스란히 스며 있었다. 하나의 압축파일 같은 자신의 공간을 훑으며 지난날을 회상하는 그의 시선을 따라가 봤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성실과 끈기로 건진 '행복'

흔히 인생의 축소판으로 '낚시'를 이야기한다. 낚싯대를 던지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그 인내심의 게임에서는 결국 물고기를 잡아야만 '성취'를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다. 낚싯대든 그물이든 일단 던지고 나면 물고기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하듯, 달을 듯 말 듯한 상태를 무던히도 견뎌야 마침내 무언가를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육신의 건강과 일상의 무탈함에 그저 '행복한' 이 회원은 그 삶의 선물을 받아내는 데 완벽히 성공한 것만 같았다. 편안하지만 곳곳한 자세가 그랬거니와, 벽면과 낮은 장 위로 빼곡한 사진과 메시지도 '건강'과 '무탈함'에 대한 그의 믿음을 뒷받침해 주고 있었다. 게다가 "3월 말 개강을 앞두고 있다"는 말은 그동안 그가 얼마나 넓고 깊게 투망해 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가난한 데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난은 독해졌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도 생각했죠. 그저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다가, 공무원이 되고 나서는 숭실대학교 대학원에서 최고 경영자과정을 밟았습니다. 어렸을 때 한학을 접했던 영향이었는지, 퇴직 후 한국전례원에서 예절교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했던 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림으로 덧칠해진 '교정의 의미'

처음부터 교정공무원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겠으나 이 회원은 그저 좋았던 감정을 기억해 냈다. 오히려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었고, 어긋나고 잘못된 삶이 교정·교화되어 가는 것을 목도하며 보람을 느꼈다. 말하자면 공무원이 되어 좋았고, '교정'공무원이 되어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는 고백이다.

"일주일에 두 번 전주와 서울을 오갔지만 힘들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수업 시간에 맞춰 서둘러 떠나느라 조퇴를 하긴 했어도 아침이면 제시간에 출근해 일하는 그 루틴을 마냥 즐겼습니다. 다만 언젠가 퇴직 이후의 삶을 그려봤고, '한학'에 '그림'이면 다름없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됐죠. 곧바로 학원에 등록했고, 당시 원광대 한국화와 교수로 있던 분에게 그림을 배웠어요. 낮에는 직장에서 밤에는 학원으로, 야근한 다음 날이면 휴식도 반납한 채 화실로 달려가 붓을 잡았던 겁니다."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이 회원에게는 스스로에 대한, 지극히 사적인 '교정(矯正)'은 아니었을까? 결핍으로 얼룩진 유년 시절 채 처리하지 못하고 방치해온 감정들이 균형을 잡아가자 비로소 차분히 내면을 돌아볼 수 있게 됐음을 이 회원은 털어냈다. 결국 그가 발음하는 '행복'이라는 단어는 막연한 개념이 아닌, 집 안 가득 쌓인 더미들

그런 의미에서 교정공무원이었던 데 대한 자부심이 큼니다. 일단 교정인에게 부여된 ‘교정과 교화’라는 일 자체가 의미 있었고요, 그 삶의 태도가 기반을 이루고 있기에 퇴직 후에도 이렇듯 바쁘게 살 수 있지 싶으니까요. 교정인으로서의 삶이 지금에 이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심정적으로도 현재의 모든 것이 그 시절 경험의 열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거든요.

처럼 손만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현상(現象)’이라는 뜻이다. 그간의 경험과 성찰이 준 삶의 착실한 결괏값, 즉 여든이라는 세월의 넉넉한 ‘품’과 여러 세대로 확장된 가족이라는 이름의 ‘울타리’, 그리고 인문학과 그림으로 가능해지는 ‘정서적 안녕’까지, 이 회원의 행복은 젊었던 날 그가 던졌을 그물만큼이나 잘 짜여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교정공무원이었던 데 대한 자부심이 큼니다. 일단 교정인에게 부여된 ‘교정과 교화’라는 일 자체가 의미 있었고요, 그 삶의 태도가 기반을 이루고 있기에 퇴직 후에도 이렇듯 바쁘게 살 수 있지 싶으니까요. 교정인으로서의 삶이 지금에 이른 것은 분명한 사실이며, 심정적으로도 현재의 모든 것이 그 시절 경험의 열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겠거든요.”

교정·교화의 ‘일’, 봉사·헌신의 ‘삶’으로

이 회원은 지난 2003년 12월 31일부로 교정의 현장에서 물러났다. 젊음으로 가장 빛났을 그 30년을 보내며 천직이라 여길 만큼 사랑한 자리였다지만, ‘퇴직’을 말하는 이 회원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다. 대신 퇴직을 3년 앞두고 교정대상 수상 차 청와대에 방문했을 때 “불행한 일을 돕는 것은 훌륭한 일이며, 범죄자를 교화하는 것은 더욱 훌륭한 일이다”는 당시 대통령의 말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들려줬다.

“교정인의 삶은 현직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현장을 떠나도 계속될 수 있죠. 오히려 생활의 범주를 늘려 인맥이 확장되면 더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때 하는 교정·교화 활동이 더 효과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 회원의 활동은 퇴직 후 더욱 노련해졌다. 진작부터 한국미협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바, 작가들로부터 기부받은 작품 판매로 무의탁 재소자 돕기에 앞장섰다. 불우이웃돕기 및 영치금 지원을 주도했으며, 지역 출신 관료들의 조찬모임을 통해 모은 기부금으로 고산에 소재한 국제재활원, 전주교도소 등을 도왔다. 아울러 교정동우회 전주지회장으로 재임하던 4년간(2013.2.~2017.1.)은 의사·철학자 등 인맥과 사비를 동원, 강의를 제공하며 회원들의 지식 함양에 이바지했다. 이쯤이면 교정 관련 행사가 있을 때마다 기꺼이 주머니를 털어 물품과 경비 지원에 나서는 통 큰 씬씀이는 기본값.

“통상적으로 ‘현직’과 ‘퇴직’으로 나뉘어 불리지만, 교정공무원에게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설령 모든 직업에서 그렇다 할지라도 유독 교정분야에서는 그 일이 곧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소외된 곳을 향해 온 시선, 어려운 사람들에게 뻗던 손, 어긋난 길을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직책을 따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 제가 아직 현장을 누비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교정·직(職)’ 경험, 사회에 귀감될 수 있기를”

이 회원을 만났던 지난 3월 11일 기준, 그는 당시 개강을 앞두고 있었다. 어린 시절 경험했던 한학이 ‘한문’으로, 한문이 전통문화를 존중했던 선비정신에 대한 향학열로 이어져 왔던 터다.

“2022년부터 전주향교 전통문화학교에서 예절교육을 하고 있어요. 퇴직하고 한국전통예절연구원을 통해 예절교육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했거든요. 지금까지 250여 쌍의 전통 혼례 집례도 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서 예절교육을 하기도, 전주교도소의 인성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으니, 강사로 활동한 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유년의 가난과 결핍이 그를 흔들지 못했다.

오히려 청년기 교정직에 애정을 갖게 했고, 중장년기에는 학구열로 들뜨게 했다. 그리고 경험과 지혜가 발현될 이즈음 이 회원의 삶은 여러 사람을 거둬해 품고도 남을 넉넉함으로 깊어지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었다. 법무부 및 검찰연수원을 비롯, 교정연수원과 전주교도소 등에 자신의 그림이 소장돼 있다고 귀땀하며 미소 짓는 그가 다음과 같은 소망을 말한다.

“화백으로 이름을 올리며 ‘우정’이라는 아호를 받았어요. 그게 몇 번이든 또(又) 사람들을 쉬게 할 수 있는 근사한 자리(亭)가 되라는 뜻이었죠. 그림이 제 삶의 큰 의미인 만큼, 그림 덕에 얻은 만큼 그 이름에 어울리게 살고 싶습니다.”



교정동우회(회장 송영삼)에서는 지난 경북·안동지역 산불사태 관련, 긴급이송 및 산불확산방지에 애쓴 직원들의 노고를 응원격려차 경북북부제2교도소 및 안동교도소에 격려금을 지원하였습니다.



경북북부제3교, 여성수용동 운영으로 교정시설의 새로운 모델 다짐 ‘지역소멸’ 돌파 위한 환영시설로 자리매김

경북북부제3교도소가 40년 이상 남성수용자가 사용하던 수용동을 여성수용자 수용동으로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따라 기존 남성수용동 3개 동을 여성수용동으로 전환, 혼거실·독거실·목욕실·직업훈련장 등을 마련하고 여성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채용된 여성 교정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이 지난 3월 17일 개최됐다. 지역 사정에 밝고 지역사회에 애정을 가진 인재를 대상으로 한 만큼 이번 채용은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상생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수용TF·한지채용으로 재사회화 지원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이번 채용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여성수용동의 정직 9급(교도)경력경쟁채용(청송군 한지채용)에 들어간 바 있다. 앞서 7월에는 여성수용자 수용TF를 구성해 청주여자교도소·거창구치소 등을 견학하며 여성 수용자의 수용 현황을 파악했으며, 이를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에 남성수용자가 사용하던 시설의 절반을 비우고 여성수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헤어·미용’과 ‘네일아트’ 등 두 가지 직업훈련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제 여성수용자의 재사회화와 재범률 감소에 본격 기여할 방침이다.

결국 이번 한지채용은 ‘여성수용자 전용 개호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그 대상이 ‘청송군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20세 이상의

여성’인 만큼 지역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과의 유대 강화 및 상생이라는 효과까지 거둘 수 있게 됐다.

‘시설 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 동시에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위헌에 해당한다.¹⁾ 이는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서 수용자 1명이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불과 1.06㎡ 또는 1.27㎡라는 점을 지적, 이러한 환경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판결에 기반하고 있다. 국내의 여성 전용 교정시설은 그간 청주여자교도소가 유일했으며, 나머지 47개의 교정시설에서는 별도의 구역을 마련해 여성수용자를 수용해 왔다. 반면 지난 2008년 1,474명이었던 여성수용자는 2015년 1,976명에서 2017년 2,262명을 넘었으며,²⁾ 2021년 9월 7일 기준 전국 교도소 등의 여성수용자



1) 헌재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결정.

2) 2018년 법무부 교정통계.

mini interview



강승연 부팀장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다가 지난해 7월 말 이곳으로 왔습니다. 오랫동안 한 곳에 있어서인지 새로운 환경이 궁금하기도 했고, 그러던 차에 개청 소식을 듣고 지원하게 됐어요. 청주에서의 23년 경력이 이곳 여성수용동 운영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TF 활동부터 했으니 이미 가능해진 거죠? 앞으로도 성실히, 즐겁게 근무하며 진정한 '청송 우먼'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수용률은 평균 136%, 최대 273%³⁾로 나타났다. 게다가 여성의 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늘어난 여성 범죄율로 여성 전용 교정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바다.

이에 교정본부는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남성수용자와 분리해 운영할 수 있는 여성수용동 신설을 결정,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기존 여성교도관들의 지원 및 한지채용으로 44명의 여직원을 배치했다. 여직원을 위한 비상 대기 숙소와 휴게실 및 상황대기실 등을 완비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현재 근무 환경 개선과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청송-거창 사례로 보는 교정시설 유치의 효과

청송군과 지역 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기존 경북북부제1~3교도소와 경북직업훈련교도소 등

교도소 4곳에서 교도소 하나를 더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교도소 추가 유치에 나선 것은 교도소의 존재가 지역 이미지 훼손 등 부정적 효과보다 지방소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를 더 많이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한다. 인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한지채용의 방식을 택한 것도 이러한 연유다.

2023년 개청된 거창구치소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거창군은 구치소 유치를 통해 교정공무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정착을 유도하고, 면회객과 관련 산업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다. 그 결과, 지역 내 소비 증가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나타나면서 교정시설이 단순한 기피시설이 아닌, 지역 발전의 한 요소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물론, 지역의 실정에 밝은 인재 중심의 채용 방식도 공이 크다.

3) 국가인권위원회. (2022년 4월 28일). "여성수용자 과밀수용 문제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 마련 등 권고" [보도자료]. <https://www.humanrights.go.kr>

한지채용 직원 한마디

경북북부제3교도소

황선민 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도관

드라마에서처럼 엄숙한 분위기에 긴장감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그치고 가르치는 모습이 꼭 학교 같아요. 마치 선생님처럼, 수용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심수민 교도

정직하고 올곧은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으로서 먼저 자신에게 엄격했던 아버지의 삶을 보고 자랐어요. 저도 실수는 줄이고 정의감은 높이는, 정직한 교정공무원이 되고자 합니다.



이예은 교도

기꺼이 잊혀질 수 있는 교도관

"나는 잊고, 그저 잘 지냈으면 좋겠다"

세월이 흘러, 당신이 관리한 수용자를 만났을 때 혼잣말처럼 하신 아버지의 말씀이 인상 깊게 남아 있습니다. 저도 보상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착실한 교도관이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400명 정도의 교정공무원 고용과 면회객의 방문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즉 정주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관계인구(정주인구와 교류인구 중간 개념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 맺고 있는 인구)도 증가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청송군이 교도소 추가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도모하는 이유다.

인권 보호부터 지역 발전까지… 변화하는 교정시설
헌법 제10조⁴⁾에 따르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할 수 없다.” 그만큼 교도소 및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과밀수용은 오랫동안 지적돼 온 문제다. 결국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이번 여성수용자 수용동 신설을 계기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해소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교정본부 또한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시작된 이러한 변화가 향후 여성 수용자를 위한 시설 확충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용해 교정본부장은 “최근 지방소멸 현상과 맞물리며 교정시설은 더 이상 남비시설이 아닌, 유치를 적극 검토하는 시설로 변모하고 있다”면서 “수용시설 과밀화, 노후화 해소를 위한 신축이 예상되는 만큼 교정 현장의 변화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4)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

한지채용 직원 한마디

거창구치소

이석형 교도

책임감 있는, 믿음직한 교도관

임용 전까지는 교도관을 수용자를 감시 및 관리하는 공무원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교도관이 되고 보니 수용자의 교화는 물론 사회복귀까지 책임지는 매력적인 직업이었어요. 선배님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구하며 제 몫을 담당하는 믿음직한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전종호 교도

교정행정과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교정공무원

가까이서 봉사하는 타 공무원과 달리 교정공무원에게는 규칙과 규율만 강조된 딱딱한 이미지가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정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교정시설의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확대되는 분위기인 만큼 저도 교정행정과 지역사회 모두에 도움 되는 교정인이 되겠습니다.



단절의 역사에서 공존의 세계로: 도시 한가운데서 변화를 꿈꾸다

춘천교도소

영육의 근현대사를 머금고 있는 춘천교도소는 '경성감옥 춘천분감'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견고한 콘크리트 담장과 높은 감시탑이 교정시설 특유의 긴장감을 전하기도 했지만, 그 역사적 배경에 자못 엄숙해진다. 그러나 담장 밖으로 이어진 산책로와 가로수만은 이곳이 얼마나 지역과 조화로워지기 위해 애쓰는지를 대변하고 있었다. 또한 그 담장 안으로, 의료수용동의 신축·이전된 모습은 교정시설의 변화를 향한 움직임을 충분히 보여주는 듯했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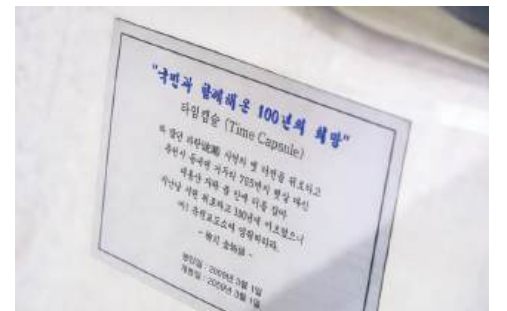
지역 특성 업고 도심으로

1908년 일본 통감부의 '감옥 분감 설치령'에 따라 '경성감옥 춘천분감'으로 설치된 춘천교도소는 이듬해 3월 1일 업무를 개시했다. 이후 1923년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로 개칭됐다가, 1946년 3월 춘천형무소로 승격한 뒤, 1962년 2월이 돼서야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그리고 1981년 7월 현재 위치인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로 이전,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춘천은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형 지역이다. 이는 도심으로 웅기종기 모여있게 되는 현상이 두드러져, 설령 외곽에 위치한 외부와는 단절된 '특수 시설'일지라도 도시가 확장되면 도심으로의 편입이 그만큼 용이해진다는 뜻이다. 춘천교도소 역시 그렇게 춘천이라는 도시 중심에 서게 됐다. 담장 너머로 고층 아파트 등 건물들이

줄비하고, 몇 년 후면 강원도청을 비롯한 주요 행정 기관이 인근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춘천교도소가 지역사회와의 거리를 좁히기에 보다 분주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단절과 격리의 공간에서 점차 도시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 가운데, 보안 유지와 '주민들의 정주 환경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학교와 관공서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인프라 덕에 도시의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하고 안정적이라는 것이 박한구 총무과장의 설명이다. 축구나 유도 등 운동을 매개로 지역 주민들과 어울리다 보면 사람들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이것이 바로, 춘천교도소가 주변으로 건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올라오는 중에도 그 입지를 낙관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하다.

근현대사 영욕의 타임캡슐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춘천교도소는 1909년 2월 통감부에 의해 서대문형무소의 전신인 경성감옥 산하의 춘천분감으로 개칭했다. 정식 명칭은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소'. 양구군에서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최도환이 이곳에서 옥사했으며(1911년), 이후에는 강원도 지역의 3·1 운동 참가자들이 수감되기도 했다. 또한 한국전쟁이 벌어진 다음 날(1950년 6월 26일)에는 박격포탄 공격을 받아 당시 70명의 직원들은 1,000여명의 수용자를 도보로 수원까지 이송해야 했으며, 미군정 시기에는 '폭동 음모사건' 및 '직원 월북사건'에 시달리며 좌·우익 대립의 장이 됐다. 심지어 6·25 전쟁 중 발생한 수용자 폭동으로 인해 총기 탈취와 교전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했다. 그 영욕의 세월을 지나 지금의 자리로 옮겨 온 것은 1981년의 일이다.



현재 춘천교도소는 45년 된 노후한 시설로, 수용환경은 독거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그러나 온돌 난방시설을 교정시설 중 가장 먼저 도입했으며(2012년), 양변기 설치(2014년), 창호 공사(2018년) 등 수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특별히 지난해에는 의료수용동을 신축·이전하고 '의료수용거실'을 마련하는 등 의료 처우를 개선해 환자 수용자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록 노후한 시설이지만 춘천교도소는 이렇듯 수용자들의 인권 보호와 수용 질서 확립을 위한 자구책을 성실히 마련해 온 것이다.

사회로 향하는 징검다리: 중간처우 제도 탄탄

다양한 직업훈련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춘천교도소는 현재 자동차 정비, 정보통신 운용, 청소공과 등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제공하며 자격증 취득을 돕고 있다. 물론 출소 예정자를 위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취·창업 교육, 외부 전문가의 면접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해 나가기도 한다.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노력도 예외 없다. 춘천교도소는 교정(校庭) 뒤편에 자리한 ‘소망의 집’에 이어, 최근에는 구외 지역인 ‘홍천의 희망센터’에 모범수형자를 위한 징검다리를 놓았다. ‘소망의 집’이 구내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구내 개방작업장 또는 외

부 업체로의 출퇴근을 경험하는 것이라면, ‘홍천희망센터’는 춘천교도소 구외인 홍천 공장 내 기숙사형 건물에서 생활하면서 작업에 참여하는 형식이다. 소망의 집이 자율성과 책임성에 바탕을 둔 사회적응을 통한 중간처우 프로그램이면, 희망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를 통한 사회복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 앞의 자리가 도시의 중심이 되어 가는 가운데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고민하는 춘천교도소. 법과 원칙을 준수하며, 수용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그들의 사회 정착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사람들. 이들이 있기에, 그리고 모든 교정인들이 이들과 같기에 대한민국의 모든 교정기관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사회로 향하는 ‘가교’로서 기능할 수 있다.



공존을 위한 새로운 변화

춘천교도소는 단순한 교정시설을 넘어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최근 몇 년 사이, 교도소의 역할은 단순한 수용 기능에서 벗어나 수용자들의 재사회화를 돕고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춘천교도소는 인근 지역 주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려하면서도, 교정시설 내부에서도 보다 인간적인 처우와 복지를 강화해 가는 중이다.

춘천교도소의 대표적인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은 교정협의회 및 자원봉사 단체와 협업이다. 지역 사회복지 기관과 협력하여 수용자들에게 다양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한편, 출소 후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사회적 지원책 마련에도 힘쓴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체육 행사 등을 통해 주민과의 거리감을 줄이려는 시도 또한 빼 놓을 수 없다.



이러한 움직임은 춘천이 단순한 교정 행정의 공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교정 모델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수용동 재정비로 의료 복지의 향상

특히 최근 신축·이전된 의료수용동은 춘천교도소의 변화된 방향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기존의 노후한 시설로 인해 의료적 처우가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이 공간은 수용자들의 건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한다. 새로운 의료수용동은 최신 의료 장비를 도입했으며, 치료 환경 역시 한층 개선했다. 감염 예방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했으며, 정신과 치료를 포함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강화했음은 물론이다.

춘천교도소는 단순한 처벌의 공간이 아니라, 변화와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단절과 격리의 상징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사회와 공존하며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춘천교도소는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더욱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교정시설로 거듭날 전망이다.

* 희망센터: 기업이 제공한 기숙사형 생활관에서 모범수형자가 거주하며, 사업장(공장)으로 자율 출·퇴근 작업과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는 수형자 중간처우 제도. 홍천희망센터는 중소기업진흥공단과 법무부와 협력해 조성한 첫 번째 희망센터 모델로, 중소기업과 수형자가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 공급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강한 팀워크와 빈틈없는 협력으로 수용자 건강 돌본다

춘천교도소 의료과

춘천교도소 의료수용동이 신축 및 이전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다. 의료과와 의료수용동으로 구성된 3층짜리 건물에서는 총 13명의 의료진이 수용자의 건강을 돌보고 있다. 단순한 치료를 넘어 교정과 교화, 사회복귀까지 연결하는 의료과 구성원들의 노력은 긴장감 속에서도 빈틈이 없다. 더욱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변화와 도전, 그 현장을 들여다본다.

글_서선미 사진_홍승진



의료수용동 재정비로 발하는 팀워크

신축과 이전으로 새롭게 단장한 춘천교도소 의료수용동은 일반 대형병원 정도의 규모다. 병동은 3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 인력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수용자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의무관·치과공보의·사복간호사·정복간호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 등 총 13명의 직원은 매일 같이 의료 환경을 개선하고 보다 나은 치료를 제공하기에 여념이 없다.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때문에 춘천교도소 의료과 직원들은 저마다 묵직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의료과에서 수용자의 건강을 직접 책임지는 것은 진료팀의 몫이다. 이들은 수용자의 기본적인 진료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 예방의학, 응급 대응까지 폭 넓은 의료 지원을 제공한다. 하루에도 수십 명의 수용자가 진료실을 방문하는데, X-ray 촬영이나 치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많다고 한다. 특히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수용자들의 경우, 내부 진료로 한계가 있는 경우 외부 병원의 정신과에 원격진료를 요청하는 일도 잦다. 응급 상황은 예고 없이 찾아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진은 24시간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약제관리팀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지급의약품 및 교부허가의약품을 관리하며, 매일 수십 건의 처방과 투약을 진행한다. 최근에는 수용자의 의료 처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면서 처방 및 투약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 업무의 강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약제관리는 단순한 약 배분을 넘어,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공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의무관의 처방을 바탕으로 약을 조제하고, 수용자의 개별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하므로 상당한 전문성과 책임감이 필수다. 업무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교한 관리와 원활한 공급은 동일하게 이어가야 할 숙제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료팀과 약제관리팀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의료행정팀의 역할이다. 이들은 의료과 운영의 중심축을 담당하며, 의료 처우에 대한 수용자의 고충을 해결하고 민원 처리에 나선다. 또한, 외부 진료 일정 조율과 약품 신청·수급 절차를 담당하는 등 의료과의 모든 계획에 대한 관리를 책임지기도 한다.

의료처우 개선으로 수용자 인권 강화

춘천교도소 의료과는 단순히 수용자의 질병 치료를 넘어, 교정과 교화 및 사회 복귀 과정까지 연계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수용자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 마련을 위해 쉼 새가 없다.



특히 순회진료 시스템을 통해 매주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의료과를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수용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각 수용동을 돌아다니며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급성 질환이나 중증 질환을 앓는 수용자는 의료과와 가까운 의료동에 배치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각 수용동에 자동혈압계를 비치한 것도 의료과의 세심한 배려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의료과를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스스로 혈압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작은 변화가 쌓이면 결국 전체적인 의료 처우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수용자의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을, 춘천교도소의 의료과 직원들은 믿고 있다.

교정시설 의료진의 사명과 보람

수용자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교정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사회의 안전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다.

교정시설의 의료진은 일반 병원의 의료진과는 또 다른 역할과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일반 병원의 의료진이 환자의 치료를 최우선으로 한다면, 교정시설 의료진은 치료뿐만 아니라 수용자의 건강 유지와 재활, 의료 관련 고충 해결까지 종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춘천교도소 의료과 직원들은 치료를 받은 수용자들이 건강을 회복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할 때, 자신들이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넘어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감한다고 한다. 단절과 격리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가 결국 수용자 개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공존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춘천교도소의 의료과 직원들은 오늘도 '보람'이라는 가치와 함께 한다.

우리나라

— 현대 행형의 성립(상) —



김용명
교도소연구소 소장(前 안동교도소장)

목차

- I. 서
- II. 해방, 그리고 미군정의 억압적 통치와
행형운영의 한계(1945년 8월~1948년 8월)
- III.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정치화된 형무소
(1948년 8월~1950년 6월)
- IV. 6·25전쟁과 형무소 피난, 회생과 야만적인
학살(1950년 6월~1953년 7월)
- V. 전후 재건과 행형개혁을 위한 도전
(1953년 7월~1961년)
- VI. 결어 : 행형에서 교정으로

참고문헌

I. 서

형사사법의 역사는 공정, 평등, 법적 안정성을 의미하는 법치주의의 이념과 대중적 사법의 열정 사이에 존재하는 긴장감 속에서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일들로 점철되어 왔다. 또한 형사사법기구는 부패, 비능률, 가혹행위와 같은 길고도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권력을 가진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 약자, 정치적 반대자, 문화와 생활방식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처벌에 형사사법체계를 주저없이 활용하였다. 정치권력과 형사사법체계의 핵심 주체들은 공익보다는 감옥을 처벌의 한 수단으로 이해하고, 반대자들을 제거하는 데 거리낌 없이 사용하였다. 즉 감옥은 지배자가 권력을 유지하고 사회질서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는 편리한 도구였다.

현대 행형은 식민지시대의 행형제도를 극복하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반영한 행형시스템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미군정, 좌우익의 극렬한 대립, 6·25전쟁 등의 시기에 회생과 헌신, 학살이 자행된 야만의 시대를 경험했다. 1945년 해방 후 식민지 시대의 법률, 제도, 시스템을 형식상이든 실질적인 내용이든 우리나라 것으로 전환하기까지의 시간과 노력은 십수년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에 국가가 저지른 야만적인 행위는 전국 형무소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나 이를 포함한 행형 전반에 대한 학계 연구는 거의 없으며, 행형 역사의 발전과정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우리나라 행형사에 대한 비판적인 학자들은 행형제도의 발전을 맥락화하려고 시도하지만, 1945년 한반도 해방과 1961년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사이의 이 시기를 대부분 간과하고 있다. 근대행형사는 주로 19세기 후반의 감옥제도 도입과 식민지 시대(1910~1945년)의 일제 통치에 대한 저항을 억압하기 위해 징역형이 사용된 것에 초점을 맞춰왔다. 전근대 형벌 문화는 주로 억제 효과를 위한 체벌과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고문에 크게 의존하는 법률 및 제도와 함께 보복적인 성격이 강했다. 근대로의 전환기인 대한제국(1897~1910년) 시기에 신체형을 시간제 형벌로 전환한 것은 갱생주의 행형사상으로의 기념비적 전환을 상징한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개입 없이 형벌과 행형 개혁을 수행할 자율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추진된 형사사법제도의 근대화는 이후 식민지 제국이 한반도의 일상생활에 침투하는 데 이용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감옥을 역사화하는 것은 식민지 정권이 독립운동가들을 구금하고 고문하고 처형하는 데 사용한 것과 분리할 수 없다. 학계는 식민지

감옥의 ‘근대성’이라는 개념을 반박하기 위해 식민지 행형 당국의 지속적인 신체 고문에 거의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행형 근대화가 식민지 경험에 의해 착색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사실이 식민지 정권과 식민지 이후의 정권을 통한 지배 권력의 확산에 대한 분석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행형제도는 피지배자와 권력자 사이의 진화하는 관계를 극명하게 드러내면서 국가 권력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도구였지만, 정권의 지지자들은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했고 위기에 처한 형무소에서 구금자 갱생의 효과를 과장했다.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적법 절차에 따른 구금이라는 식민지 행형제도의 정당성을 계승했지만,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계속해서 초법적이고 예외적인 폭력으로 회귀했다. 식민지 시대와 미군정 사이의 틈새에서 이러한 권력관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군사 정부에서 어떻게 통합되었는지, 그 후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아가 행형개혁이라는 매우 다른 맥락에서 구금자의 갱생은 자유가 박탈된 자를 자유로운 주체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기능은 민주적 통치를 정당화하는 데 필요하였다. 형무소의 처벌 이미지는 식민통치로부터 해방의 장소에서 ‘반역자’를 처벌하는 장소로, 그리고 결국에는 선량한 시민을 양성하고 책임감을 심어 ‘자유 세계’ 국가의 합당한 일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학교로 변화했다. 형무소는 구금자와 시민 모두에게 일탈과 범죄를 국가 발전의 장애물로 규정하는 혐오감을 주입하는 또 다른 통로였다.

1945년 8월 16일 경성형무소 밖에서 해방된 정치범을 맞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 한가운데를 점령한 채 전차를 멈춰 세우는 모습은 식민지 시기의 일상적인 삶의 흐름이 멈춰버린 모습이다. 그러나 이 순간의 희망은 잠시뿐, 해방과 함께 점령과 분단, 이념대립으로 인한 학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II. 해방, 그리고 미군정의 억압적 통치와 행형운영의 한계 (1945년 8월~1948년 8월)

가. 서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까지 시기는 대한제국부터 시작되어 식민지 시대를 거친 근대 행형으로부터 현대 행형으로의 변혁기에 해당한다. 자료 소실과 연구 부재 등

으로 혼란과 대립, 갈등의 시기에 행형운영과 형무소 상황에 대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서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은 식민지 침략 과정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구금하여 사회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우리나라에 형벌과 행형의 근대화를 강요하는 등 사회통제수단으로 근대식 감옥을 도입했다. 감옥은 범죄자의 갱생과 다른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데 있어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이용된 전형적인 근대적 시설이었다. 해방 후 형벌과 행형시스템의 한국화는 식민지 억압의 도구인 감옥이 사회 통제의 필수 시스템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었다. 이 시기는 총독부로부터 형무소를 접수하고 형무소 확장을 통해 행형 개혁과 미국의 이익에 우호적인 정권을 수립하려는 미군정의 계획이 교차하는 시기이다. 미군정은 행형시스템을 한국화함으로써 가혹한 식민지 제도를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한국 통치의 도구로 바꾸려고 했지만, 우리나라가 스스로 제도를 개혁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 범죄, 빈곤 범죄, 미군정 명령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절망에 의한 경제 범죄가 만연했다. 일본인들은 식민지 은행 금고로부터 많은 자본을 가지고 귀환하려고 하였고 이는 인플레이션과 곡물 배급 위기를 촉발했다. 정치 엘리트들이 새로운 정부 기구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경쟁하는 동안 노동자 계급은 과열된 식민지 경제에서 사회적 재생산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해방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존재를 위한 공간을 열어주었지만,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써 이주와 격변, 사회 범죄도 증가했다.

해방 후 수년 동안 형무소 운영과 수용자 처우에 대해 식민지의 법령이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다. 1948년 3월 31일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2호로 「우량수형자 석방령」이 공포되어 선시제도(good time system)가 시행되었으나,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유명무실하게 되다가 1953년 형법 제정시 부칙에 의해 폐지되었다. 또한 1912년 조선감옥령 제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된 일본 감옥법상 징벌의 종류 가운데 감식(減食)별은 1946년 3월 23일 형정국장 지시로 폐지되었다. 미군정은 1908년부터 식민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형무소 감독권이 공소원(고등법원에 해당)에 있었던 것을 폐지하고 감독권이 법무부장관에게 속하게 하였다. 이 제도의 시작은 일본에서 감옥은 사법대신이 직접 감독하였으나 식민지인 우리나라에서는 법무대신과 함께 공소원 검사장으로 하여 관내에 있는 감옥을 감독하도록 중간감독제도를 마련하고 나서부터였다. 이때부터 검사 중에는 감옥 감독권이 검사장에게 있는 것을 마치 검사국에 있는 것 같이 오해하여 감옥에 대해 감독관 행세를 하고 임하는

자가 있었으며 지방의 감옥감독의 업무를 위탁하여 검사장이나 지청의 검사에까지도 감독행위를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검사는 마치 감옥의 감독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총독부는 식민지 감옥운영에 실효를 거두어왔으며, 해방 후에는 행형운영에 검찰의 과도한 관여가 존재하였고 행형이 정치권력에 이용되는 불행한 역사를 가진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1946년에만 1,200명의 형무관이 교체되었는데, 그중 가장 많은 비율(328명)이 명령 위반, 직무 태만, 비효율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1,206명의 형무관이 해고되었지만 형무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신규 형무관은 807명에 불과했고, 빈자리를 형무관의 이직률을 따라잡을 만큼 자격을 갖춘 지원자로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인사 문제는 이미 과밀화된 형무소의 질서를 악화시켰다.

나. 해방과 행형기관의 상황, 인수와 행형조직 구성

무너져가는 식민지 조선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의 순간은 한국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무수히 많은 영향을 미쳤지만, 일본의 항복 소식이 형무소 복도처럼 울려 퍼진 곳은 찾아보기 어렵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미국에 항복한 후 형무소는 사실상 비워졌다. 다음날 오전 11시경, 서울에서 석방된 재소자들은 태극기를 휘두르는 환영 행렬에 합류하여 도심 지역인 종로로 향했다. 활기찬 시민들은 형무소 문을 통과하는 자유의 투사들의 모습에서 해방된 우리나라의 미래를 보았다.

조선총독부는 여운형과 협의를 하여 치안유지를 의뢰하였고 그는 해방 당일 오후 4시에 서대문형무소를 방문하였으며 다음 날인 16일 오전 9시부터 정치범과 경제사범을 위주로 석방하였다. 정치범 석방은 식민지 행형 시스템의 지속성과 정당성에 균열을 내는 스펙터클이었다. 식민지 행형을 넘어선 사회적 존재를 위한 공간을 일시적으로 열었지만 일탈한 빈곤층, 즉 사회적 범죄의 가해자와 비정치적이라고 간주되는 범죄자들을 계속 감금함으로써 식민지 체제의 지배 논리를 유지했다. 이 시기를 권력 공백기라고 표현하지만, 일본이 물러간 후에도 한동안 행형제도에 권력의 논리와 덧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미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1945년 6월 한반도의 26개 형무소에는 30,413명의 구금자가 있었고, 38선 이남의 17개 형무소에는 17,243명의 구금자가 있었다고 한다. 8월 말까지 해방 직전 구금자 29,000명 중 약 2,600명이 감옥에 남아있었다.¹⁾ 9월 8일

미군 장병들이 한반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남쪽의 모든 형벌 기관에 구금된 구금자 수가 총 1,40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했다.

권력의 공백 속에 남은 것은 식민지 통치와 근대화의 도가니 속에서 형성된 일탈 주체를 처벌하고 감금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였다. 해방 후 식민지배자들이 경찰, 형무소와 같은 제도를 정비하여 정부 권력을 발전시키는 데서 멈춘 부분을 미군정이 이어받았다. 1945년 10월 9일 법무국장 보좌관에 김영희가, 형무과장에 최병석이 임명됨에 따라 2팀의 접수반을 편성하여 형무소 접수를 시작하였으며 전국 형무소를 인수하면서 한국인 직원 중 최상위자를 대리임명자로 현지에서 임명하였다.

경성형무소는 해방 당일 수용인원은 2,039명으로 본소에 1,543명, 의정부농장에 496명이 수용되어 있었다. 경성형무소와 서대문형무소의 일본인 직원들은 행형기록을 파기하고 돈을 벌기 위해 형무소 자료를 팔아넘기다가 적발되었다. 대전형무소에서는 해방 다음 날부터 사상범, 재산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용자를 석방하였으며 잔류자 400명이 폭동을 일으키고 도주를 기도하였으며 접수는 10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대구형무소에는 해방 당일 1,550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다음날부터 석방절차에 들어가 흉악범 240명을 남기고 모두 석방하였다. 일본인 직원들은 가족과 함께 9월 8일 일본으로 귀국하였으며 간부직원은 10월 24일 대구역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귀향하였다. 목포형무소에서는 해방 당일에도 아침부터 500명의 수형자를 항만정비작업에 출력시켰다가 일상대로 저녁에 형무소로 돌아

왔다. 다음 날 아침부터 치안유지법 등 정치범과 경제사범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수형자는 24시간 이내에 석방하라는 지시에 따라 수용자의 60%를 석방하였다. 가족 등이 형무소 정문으로 몰려 들어 상황이 어려워 짐에 따라 8월 20일까지 전 수용자를 석방하였다. 미군정 담당관이 시설을 접수하러 온 것은 9월 중순경이었으나 접수관이 온 것은 11월 중순 이후였다. 인천소년형무소는 해방 당일 소년수용자 530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다음날 전원 석방하였다.

11월 13일부터 3일간 접수반이 현지



미육군 Maye J. Thompson 대령이 서대문형무소를 시찰하는 장면(1945년 10월 25일)

1) 치형협회, 형정통계, 형정, 1949년 통권 11호.

답사를 하였으며 비밀문서 소각과 봉급 선지급 문제로 소장과 간수장 1명이 서대문형무소에 구속되었다. 11월 20일 일본인 전직원이 화물열차로 부산으로 이동하여 귀국하였다. 김천소년형무소에는 해방 당시 500명이 구금되어 있었으며 8월 16일 환자 30명을 남기고 전원 석방하였다. 11월 22일경 접수원이 도착하여 인계를 하고 간부는 11월 25일 김천역에서 승차하여 부산항을 통해 귀국하였다.

해방 후 형무소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데에는 수개월 이상이 필요하였으며, 그동안 형무소 공간은 국가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필수적인 기구로 자리 잡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장과 직원으로 형무소를 재건한다는 사실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법과 질서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권한이 국민의 손에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했다. 식민지 시대의 형무소 관리들을 해임하고 자문 역할을 하는 미 국민들을 계속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을 형무소 관리로 임명한 것은 독립된 국가 건설에 중요한 제스처였다.

다. 미군정의 통치와 행형운영의 한계

1945년 9월 8일, 주한 미군정이 수립되었으며 미군정 하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미군정 지도자들은 도착 후 몇 주 만에 38도선 이남 지역의 법적 권위자로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 Emery J. Woodall 소령은 법무국장으로 임명되어 법원의 재판과 법과 질서 문제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 총사령부는 해방 이후 생겨난 평화 유지 단체의 권한을 빼앗고, 1945년 9월 내내 그들과 주도권을 놓고 경쟁하기도 했다.

1946년 3월 군정법령 제64호로 법무국을 사법부로, 형무과는 형정국으로 변경되었으며 형정국에 보호과, 서무과, 경리계, 형무계, 작업계, 교무계, 보호계를 두었다. 1947년 5월 군정법령 141호로 남조선과도정부라고 부르고 형정국 내 각 계를 형무과, 작업과, 서무과, 교무과, 보호과로 개편하였다. 이 시기에 일선행형기관으로 18개 형무소와 1개 지소 및 형무관학교를 운영하였다.

해방 이후 형무소가 전면적인 폐지에서 구조조정과 과잉수용으로 급격하게 전환한 것은 좌우이념대립, 냉전시대, 무능한 정부 등을 포함한 우리나라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범죄자들을 처벌하고 구금하는 도구는 점차 가동을 재개했지만 식민지 시대의 탄압과 권력 남용의 악취를 제거해야 했다. 미군은 식민지 정권에 협력했던 한국인 직원들을 해고할지, 아니면 유지할지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지만, 행형 업무의

한국화는 미군정의 정당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경찰서, 형무소는 식민지 유산을 가장 극명하게 느낄 수 있는 현장으로, 담당자들이 제복만 바꾸고 관행은 바꾸지 않는다면 전체 업무가 그대로인 것이나 다름없었다. 미군정은 형무소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법령을 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형무소는 반체제 인사들의 구금을 통해 통제함으로써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을 늦출 수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을 내부적으로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장소였다. 식민지 시대의 형무소와 경찰서는 주민들을 진정시킬 수 있는 능력을 유지했던 몇 안 되는 구 정권의 잔재였다. 일관되고 합법적인 국가 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미군정은 기존의 식민지 권력관계의 매트릭스를 활용하고 확장할 수 있었지만, 식민지 시대에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형무소를 이용했던 아픈 기억도 떠올리게 했다.

국가 권력의 회복은 범죄의 원인에 관계없이 범죄자의 신체를 처벌하고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일탈자에 대한 구금은 식민지적 기원에서 벗어나야 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점령자의 억압 도구가 아니라 자율적인 통치의 수단으로 확립되어야 했다. 이를 위한 상징적인 조치 중 하나는 사법 및 형벌 기관의 수장에 있던 일본인을 제거하고 한국인으로 교체하는 것이었으며 미군정 당국은 1945년 10월 9일 예일대 졸업생으로 법조계 경험이 없는 김영희 박사를 법무국장으로, 최병석을 형무국장으로 임명했다. 형무소는 1945년 10월 17일에 명목상 한국인 관리자에게 넘겨졌지만 미군 고문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고문과 한국인 직원으로 법무부 지도부가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형무소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할 자격을 갖춘 인력을 찾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었다.

행형에서는 식민지 체제에서 일했던 형무관들로부터 단 한 달 동안만 교육을 받은 신입 형무관들은 식민지 체제의 나쁜 습관과 과잉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으며, 식민지 시대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소수의 한국인 직원들을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난제가 숨어 있었다. 미군정은 식민지 행형 인프라와 많은 직원들에게 의존하면서 현재와 미래의 행형을 식민지 시대에 비해 훨씬 더 민주적인 것으로 포장했다.

형정국은 1945년 11월부터 전국의 형무소 현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12월 초에 진행된 조사에서는 17개 주요 형무소 중 절반만 실태를 보고할 수 있었으며, 상당수가 여전히 일본인 인력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민지 시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체제의 행형 기구의 공백을 메우려는 미군정 초기의 노력은 혼란과 물질적 어려움, 관료적 비효율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식민지 형벌제도의 시설과 많은 일반 직원들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미군정 초기 행형개혁은 난민 대량 송환, 인플레이션, 곡물 분배 위기라는 절망적인 사회 현실로 인해 빈곤 범죄가 증가하는 시기와 맞물려 있었다. 이 시기는 기아와 높은 영아 사망률로 점철된 시기였고, 빈곤 범죄는 생존을 위한 혼한 방법이었다. 이러한 물질적 조건으로 인해 절도 및 강도죄로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형무소가 꽉 차기 시작하면서 과도기 형사사법 체계에 추가적인 압력을 가했다. 1945년 12월 서울형무소 전체 재소자 중 절반 이상(1,241명)이 절도 또는 강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 다른 23%(291명)는 미군정 명령 위반으로 구금되었으며, 이러한 유죄 판결은 대부분 군수품 절도와 관련이 있었다.

1946년 광복 직후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미군정의 강제적인 양곡 공출, 미곡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해 식량난이 계속되자, 대구와 경상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추수봉기가 발생하였다. 이는 노동자 중심의 9월 총파업, 농민 중심의 10월 인민항쟁으로 이어지는데, 1946년 9월부터 12월에 걸쳐 38도선 이남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광주 지역에서는 농민과 노동자 등 일부 군중이 모여 10월과 11월 사이에 소규모 시위를 하였다. 형무소는 1946년 가을 추수 봉기 전, 도중, 후에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도구였으며, 이후의 탄압으로 형무소는 급격히 넘쳐났고, 국가가 경제 위기에 빠지면서 수용자들은 굶기 시작했다. 같은 시기에 미군정은 모든 형태의 반대를 범죄화하여 저항의 현장을 형무소 담장 안으로 몰아넣었다. 1946년 7월 보고서에는 전국 형무소의 총구금자 수가 12,150명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형무소가 식민지 시대의 구금자 수로 다시 채워지면서 형무관들은 종교, 노동, 위생 관행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치적 분쟁, 한반도로 돌아오는 난민, 빈곤 범죄의 물결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행형에 대한 압박이 가중되었다. 형무소는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가난한 시민의 유입은 말할 것도 없고, 평상시에도 구금자 수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다.

1946년 가을 추수 봉기로 인해 형무소에는 전례 없는 수의 폭동과 탈옥 시도가 발생했다.²⁾ 탄압으로 인해 전반적인 반발을 잠재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구금자들의 저항의 장소가 형무소 내부로, 심지어는 신체 자체로 옮겨가기도 했다. 대구는 지역 경찰에 대한 가장 폭력적이고 직접적인 공격이 발생한 곳으로 공격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대구형무소에는 구금자가 넘쳐났다. 10월 1일 대규모 봉기 이후 53명의 경찰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의 재소자가 대구형무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알려졌다.

2) 형무소 집단탈옥사건에 대해 자세한 것은 교정본부, 대한민국 교정사 I, 2010년 5월 31일, 352-358면 참조.

10월 24일 광주형무소에서는 정치범들이 형무관의 도움을 받아 탈옥을 계획하던 중 발각되었다. 광범위한 반란의 분위기로 인해 형무소는 정치적 반체제 인사들의 표적이 되고 인큐베이터가 되었다. 광주형무소에서 또 다른 대규모 탈옥 시도가 있을 때까지 대중에게 전주형무소 탈옥 사건의 진전 상황을 계속 알렸다. 11월 21일 밤, 작업 중이던 한 무리의 구금자들이 형무소 내 공장에 불을 지르고 폭동을 일으켰는데, 이 폭동에는 구금자 200명(총 900명)이 포함되었다. 폭동의 주동자로 추정되는 구금자 51명이 광주에서 대전형무소로 이송되었다. 목포형무소에서도 12명의 죄수들이 세운 계획이 발각되었다.

이미 과밀화된 형무소는 이러한 검거 작전의 정점을 찍었고, 미군정 당국은 과밀 형무소라는 화약고에 좌파 급진주의자들을 보내면서 직면하게 될 역풍을 예측하지 못했다. 1946년 5월 29일 아침, 서울형무소 정치범 중 일부가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이들은 배급으로 지급되는 보리와 영양가가 낮은 곡물 외에 쌀밥을 요구했다. 6월부터 7월까지 전국 형무소 인구는 43%(12,150명에서 17,375명으로) 증가했고, 5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구금자는 두 배로 증가했다. 김천형무소에는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 831명의 구금자가 꽉 차 있었다. 전국 구금자 수가 1만 7천 명에 달했을 때, 미군정 형무소의 구금자 수는 해방 전의 수치를 넘어섰다. 전국 총 19,407명은 식민지 말기보다 약 2,000명이 더 많은 수치이다. 식민지 시대를 넘어서는 속도로 형무소가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하면서 형무소의 기본적인 인프라는 한계점에 달하였다.

형무소 폭동과 단식 투쟁은 열악한 환경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재소자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었다. 한 달이 넘는 단식 투쟁은 구금자들이 애국심을 표현하는 익숙한 구호인 만세를 외치며 소란으로 변했고, 10명의 단식 투쟁자가 계속 음식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947년 7월, 미국의 공식적인 통치하에 마지막으로 대규모 시위와 단식 투쟁이 춘천형무소를 강타했다. 422명의 구금자 중 158명이 배식을 거부하고 신문 접근, 더 좋은 배급, 사적(私的) 또는 초법적 처벌 관행의 중단 등 이전 운동과 유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다.

1947년 여름이 되자 정부 권한은 명목상 대한민국임시정부(SKIG)로 넘어갔다. 여름철 전국 구금자 수는 5월 20,554명, 6월 19,833명, 7월 19,777명으로 겨울의 최고치 아래로 다시 내려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8월에는 총 19,263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그러나 서대문형무소는 여전히 수용인원을 초과하여 4,000명을 수용하였다. 이 시기에는 형무소가 구금만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전락하였으며, 행형제도의 정비는 먼 훗날에나 실현가능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III.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정치화된 형무소 (1948년 8월~1950년 6월)

가. 서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국내에 선포하였으며, 대한민국 제1공화국의 공식적인 수립 이후 미군정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은 1949년 1월의 일이었다. 한편 정부의 각 직제가 제정되었으며 법무부 형정국은 18개 형무소와 1개 형무지소 및 형무관학교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구로 발족하였다.

미군정과 제1공화국 초기까지 식민지 감옥법이 그대로 적용되었으며, 해방 후 거의 5년이 지나서야 우리나라 독자의 「행형법」(법률 제105호)을 1950년 3월 2일 공포·시행하였다. 그러나 행형법 시행을 위한 부속 법령이 제정되지 아니하여 식민지 시대의 「감옥법시행규칙」이 그대로 적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형법의 체제과 내용은 감옥법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였다. 더구나 6·25 전쟁이 발발하여 행형법 시행은 종전 이후로 미루어지게 되었다.

초기 대한민국 정부는 노골적으로 형무소를 반공 전향을 위한 정치적인 이용을 하면서 형무소의 일반적인 사회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군정시대부터 형무관들은 재소자 수, 의료 서비스, 배급에 대한 접근성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 시기에는 이승만 정권이 건국 사면을 통해 구금자 수를 줄이는 데 실패하였다. 하향식이고 자의적인 형무소 구금자 총량 감축은 애초에 많은 국민들이 가난이나 반란 범죄에 의지하게 된 사회적 조건을 완화할 수 없었다. 게다가 반공법과 가혹한 단속은 과밀 수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이었다.

나. 사면과 형무소 공간의 변질

1948년 제1공화국 수립과 함께 수천 명의 정치범을 석방하고 사면함으로써 식민 통치에서 해방되자마자 정치범을 석방한 것을 기념했다. 수형자 사면은 자선 행위가 아니었으나 이후에도 이승만 정권은 새로 수립된 제1공화국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사면을 활용했다. 형무소 과밀화를 줄이기 위한 홍보 전략이자 임시방편이었던 이 조치는 언론이 출소자의 재범 문제를 지속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드러났다. 사면은 당시 총 22,300명의 재소자가 구금되어 있던 대한민국의 19개 형무소를 모두

대상으로 했다. 미결, 벌금과 장기 형기가 남은 구금자를 제외한 3,740명의 구금자 석방을 승인했으며 석방자 중에는 438명의 정치범이 포함되었다. 사면은 새 정권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구축하는 데 상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형무소의 과밀과 물질적 부족을 직접적으로 완화하는 효과도 있었다. 서울형무소 구금자 3,225명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1,064명이, 마포형무소에서는 1,813명 중 608명이 출소하였다. 같은 주에 대구에서 200여 명, 대전에서 760여 명, 진주에서 153명, 부산에서 800여 명의 재소자가 석방되어 해당 형무소의 재소자 수가 절반으로 줄었다.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10월 6일까지 총 6,192명의 재소자가 석방되었다.

이 사면은 명목상 미군정으로부터 분리된 새로운 정권이 국가와 사회에 대한 어떤 행위가 사면 가능한 범죄인지 판단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점에서도 차별화되었다. 언론 보도에서는 사면의 구체적인 명분(건국)과 동시 감형(일제 통치에서 해방된 기념일)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방과 정부수립의 두 기념일을 같은 날짜로 한 것은 대한민국이 해방된 대한민국의 유일한 합법적 계승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적인 전략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광복과 사면이 동시에 이뤄진다는 것은 주권국가의 상징성이 담긴 표현이었다.



부산형무소 가석방식

정부수립 후 사면은 구금자들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평가되었으며 상징적인 차원에서 사회 범죄에 대한 처벌은 한국인들에게 구금자들이

갱생을 통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사면을 다룬 신문기사에는 석방된 구금자들이 형무소 문 앞에서 가족을 만나는 사진이 실렸고, 수많은 구금자들이 자유사회로 돌아간 것을 새로 수립된 공화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포장했다. 그러나 경제적 지원이 없는 많은 출소자들이 출소 후 몇 주, 며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다시 범죄에 손을 댔다.

한편, 건국 사면 직후 형무소는 고도로 정치화된 반공 전향의 공간이 되었다. 국가와 좌파 세력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형무소 담장을 드나드는 데 따르는 위험은 점점 더 커졌다. 그러나 형무소는 단순한 사회 통제 수단이 아니라 냉전시대에 이상적인 반공주의 시민을 생산하는 동시에 국가에 반항적인 타자를 식별, 격리, 개종시키는 도구였다. 6·25전쟁 이전 형무소의 전향 의식은 행형개혁 프로그램에서 벗어난 일탈이나 편차가 아니라 건국 사면으로 시작된 국가 중심의 구금자 갱생 프로그램의 논리적 결과였다. 그리고 건국 초기의 반공주의적 열기는 처벌과 과시적인 전향쇼가 결합된 형태로 형무소 공간에서 나타났다. 갱생에 대한 개념은 인력의 생산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주의적 프로젝트에서 숨겨진 내부의 적을 뿌리 뽑고 전향시키는 것으로 변모했다. 형무소에서의 전향은 냉전 경쟁의 현장이 되었고, 선전을 위한 화려한 이미지와 내러티브를 생산했으며, 형벌제도의 역할을 기본적인 사회 통제에서 냉전의 내외부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는 역할로 격상시켰다. 사면은 우리나라 초기 행형역사에서 당국이 구조적이고 물질적인 문제를 이데올로기적 해결책으로 해결하려 했던 많은 사례 중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되었다. 당국은 형무소 과밀화에 대한 해결책을 민족주의적 태도와 사회의 방향에 대한 실질적인 우려를 혼합하여 은폐했다. 재범률은 형무소 시스템의 직업훈련이나 성공적인 갱생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가석방 제도는 1950년대 후반까지 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지 못했다.

다. 좌우대립의 혼란과 국가보안법 제정, 반공공간으로 탈바꿈한 형무소

1948년 10월 좌익 군인들이 계획한 반란은 주로 진행 중인 제주 봉기의 폭력적인 진압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군인들은 정부정서에 반대하여 동조하는 민간인들과 합류했고, 국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반란을 진압하였으며 지방의 좌익 동조자들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에 착수했다. 반란이 진압된 후 대구지역에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지만 역시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비워진 감옥은 다시 구금자들로 채워졌다. 직접적인 예로 대전형무소는 10월에 700여 명의 구금자를 석방했지만 11월에는 순천

지역에서 체포된 반란군 700여 명으로 다시 채워졌다. 정부는 이 사건을 이용해 좌익으로 추정되는 사람들과 그 동조자, 그리고 전투에 휘말린 다른 민간인들에 대한 전례 없는 단속을 정당화했다.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시민의 행동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표현의 자유, 정치적 결사, 인신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국가의 권한을 크게 확대했다. 특히 좌익 용의자를 등록, 감시하고 반공, 친정권 성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유사 시민단체인 국민계도연맹(NGL)³⁾을 설립함으로써 감시와 감금 네트워크 구축이 가속화되었다.

과밀한 형무소 공간에 여유를 주었던 대규모 사면은 오래가지 못했다. 여순사건을 진압한 이승만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169개 정치범죄의 범위와 범주를 확대함으로써 이는 곧 좌익 정치범의 증가로 이어졌다. 국가보안법은 정권의 반대파를 ‘국가의 평온을 교란하려는 배신자와 결속 또는 집단화하려는 목적’을 공모한 범죄자로 낙인찍어 공산주의를 사실상 불법으로 만들었다. 1949년에는 좌익으로 추정되는 구금자가 전체 구금자의 80%에 달했다. 형무소는 정권이 반대파를 제거하는 데 유용한 도구였지만, 이러한 정치범죄의 범주적 확장은 형무소의 물질적 어려움을 악화시킬 뿐이었다. 동시에 형무소 담장 양쪽에서 반공주의 열정으로 대중을 동원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공고화를 촉진했다.

연도	계	기결	미결	기타(노역)	비고
1945	2,620	1,922	694	4	
1946	20,016	17,517	2,499		
1947	20,485	17,867	3,591		
1948	16,661	12,062	4,566	33	이념대립으로
1949	35,119	21,997	13,085	37	좌익수용자 급증

수감자 수는 식민지 시대 한반도 전체 구금 인구의 최소 두 배에 달하였다. 대전형무소에서는 매일 1~2명의 재소자가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감방이 평소 수용

3) 국민보도연맹(國民保導聯盟)은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극좌사상에 물든 사람들을 사상전향시켜 이들을 보호하고 인도한다.’는 취지와 국민의 사상을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려는 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통제를 목적으로 1949년 6월 5일에 조직했던 반공단체로, 흔히 보도연맹이라고 부른다.

인원의 두세 배로 가득 차 있었다. 비슷한 과밀 수용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형무소에서조차 추가 감방 건설을 서둘러 재개했다. 공간도 문제였지만 배급은 또 다른 문제였다. 같은 시기에 행형 당국은 ‘민주행형’이라는 슬로건 아래 형무소 운영과 갱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1950년 3월 「행형법」을 제정했지만 많은 프로그램이 전쟁으로 중단되었다. 국회는 행형법을 통과시키면서 1948년 재범사건에 대한 반발로 촉발된 형무소 기능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행형법은 행형의 목표를 수형자의 교화로 전환하여 출소 후 생산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수형자를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개혁하는 것이 다시 강조된 것은 정치범의 사상적 개종을 수행하라는 행형기관에 대한 압력의 증가와 맞물려 반공주의의 열정과 전쟁 위협의 증가로 인해 묻혀버렸다.



서울지역 좌익사범 처형(1950년 4월)

국가보안법 통과라는 임계점 이후 모든 범죄는 정치범죄로 왜곡되고 모든 구금자는 반역자로 간주될 수 있었다. 국가와 행형 당국은 다시 범죄자의 전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생 자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이고 당연한 것으로 묘사했다. 따라서 처벌은 새로운 반공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재교육으로 구성되었다.

IV. 6·25전쟁과 형무소 피난, 희생과 야만적인 학살 (1950년 6월~1953년 7월)

가. 서

6·25전쟁 동안 형무소에 대한 담론의 주된 내용은 첫째, 형무소는 국가와 인민군이 이념을 이유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육한 현장이었다는 점, 둘째, 정부는 6·25

전쟁과 관련하여 형무소 운영과 수용자 피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각 형무소에 방임함으로 인해 형무소 피난의 실상은 참혹함 그 자체였다는 점, 셋째, 수용자를 보호하면서 호송하고 형무소의 기본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애쓴 형무관과 희생된 형무관에 대한 이야기 등이다. 그러나 1950년 6월부터 1953년 9월까지 당시 형무소의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기록 자료는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흩어진 기록과 기억의 편린들을 모아 당시 상황에 대해 기술 할 수밖에 없다.

6·25전쟁 당시 형무소는 한반도가 한국군과 북한군 사이에 수시로 바뀌는 동안 해방 또는 학살의 장소로 사용되었다. 1950년 9월 서울을 탈환한 후 이승만 정권은 북한조선인민군과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구금하고 신속하게 처형하는 데 형무소를 이용했다. 6·25전쟁 중 좌익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대량 학살되었고, 인민군이 국경을 넘어 남하하자 형무소는 전투에 휘말린 정치범과 다른 구금자들을 학살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러한 학살은 정권에 대한 실제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전술을 훨씬 뛰어넘는 편집증적이고 보복적인 대응이었다. 이는 수년간의 반공주의적 열정과 재범자들을 사회에 재통합하지 못한 채 범죄 빈민층에 대한 불신이 낳은 논리적 결과였다.

대구, 마산, 부산형무소 3곳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무소 건물과 시설은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으며, 복구는 1950년 후반까지도 부분적으로 완료되었다. 당시 발간된 『형무요람』에 간략하게 언급된 것 외에는 전후 한국 행형 시스템의 재건이나 1961년 ‘행형’에서 ‘교정’으로의 전환을 자세히 다룬 연구는 없다. 6·25전쟁 중에 형무소의 역할은 모호했지만, 전쟁의 파괴로 인해 행형가들은 시설을 재건하고 냉전 시대 미국 동맹국들의 이른바 자유 세계 건설 프로젝트로서 갱생을 재정의해야 했다. 형무소의 재건과 개혁은 냉전 동맹국의 인프라, 경제, 공중보건 시스템을 재건하려는 미국과 유럽의 노력에서 필수적인 프로젝트였다.

나. 6·25와 형무소 피난, 희생과 학살

6·25전쟁 당시 형무소 피난에 대한 기록은 남아있지 아니하고 정리된 문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정본부에서 1986년 『한국교정사』를 편찬하기 위해 6·25전쟁 당시 근무했던 형무관들을 찾아가서 대담형식 또는 구술자료를 정리한 자료가 남아있다. 그 기록들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1950년 6월 25일을 시작으로 한 형무소 피난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과 생사의 시간들이었으며, 거의 알려지지 아니한

1.4후퇴 당시 형무소 피난은 보다 더 비참한 상황 아래 이루어졌다.

춘천형무소에 근무했던 형무관이 남긴 춘천형무소 피난의 기록은 한 편의 드라마와 같으며, 형무형무소 전체가 파괴되고 난 후 재건하는 사진이 남아있다. 당시 춘천형무소에는 1,250명(기결 900명, 미결 350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그 중 좌익수가 70% 정도였다. 춘천형무소가 피난길에 오른 것은 6월 26일 오후 3시 40분 경으로 직원 60명과 수용자 1,000여 명을 20개의 이동행군 대열로 편성하고 트럭 1대에 여자수용자 28명, 다른 트럭 한 대에는 식량 20가마니를 싣고 출발하였으며 당일 밤은 강변에서 노숙하였다. 출발한지 3일만에 겨우 70리를 이동하였고 2일 동안 모두가 굶주렸으며, 이때부터 조절석방을 시작하여 10년 이상 좌익수 184명을 데리고 여주를 향해 출발하여 6월 29일 여주초등학교에 도착하였다. 6월 30일 여주역에서 오후 3시반에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오후 6시경 수원역에 도착하였다.

당시 서울에는 2개의 형무소가 있었으며 조절석방 등을 통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로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법무부 행형당국자들은 일선 형무소에 아무런 지시도 내리지 않고 모두 피난하였다. 서대문형무소는 소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이 정문을 굳게 닫고 비상경비를 하면서 법무부로부터 지시를 기다리다가 연락이 없어 직원을 광화문 청사로 보내 알아보니 정부가 없어진 상태였으며 직원들과 수용자들이 피난하기도 전에 인민군이 탱크로 정문을 밀고 들어와 당시 현장에 있던 형무관들이 모두 희생되었으며, 인민군들은 서무과에 있던 직원 주소록으로 형무관들을 찾아서 죽였다고 한다. 마포형무소는 소장과 간부들이 직원들에게 형무소를 지키라고 명령해 놓고 자신들은 도망쳤고 남아 있던 직원들은 인민군들이 형무소를 점령하면서 죽음을 당하고 인민군들이 거실문을 열고 수용자들을 풀어주었으며, 당시 형무소 운영에 협력했던 지도원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청주형무소는 6·25전쟁 당시 500명 규모에 1,600여 명이 수용되어 있었으며 그중 절반 이상은 포고령 제2호 위반자들이었다. 조절석방 등을 통해 수용인원이 줄어들었으나 보도연맹에 가입하였던 수용자 400명이 입소하는 등을 반복하는 전시상황 속에서 7월 11일 재소자 200여 명을 대전교도소로 호송하고 텅 빈 청주형무소를 잠그고 직원들은 피난길에 올랐다.



6·25전쟁으로 파괴된 춘천형무소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청주형무소

한편, 형무소는 적을 도왔다는 의심을 받는 사람들을 집중 수용하는 공간으로서 6·25전쟁 학살의 주요 장소였다. 전쟁 초기 행형상황은 한반도 남쪽으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이동 중이던 구금자들을 학살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졌다. 진격하는 적으로부터 수백 명의 포로를 이송할 책임을 회피한 한국군과 경찰에 의해 수천 명의 포로가 처형되었다. 이러한 성급한 결정의 가장 악명 높은 사례는 1950년 7월 대전형무소에서 발생한 정치범 학살 사건이다. 전쟁 초기의 학살은 적의 진격에 따라 서둘러 이루어진 것만이 아니었다. 후방지역 형무소에서도 좌익 범죄 용의자를 집중적으로 처형하는 데 사용되었다.



6·25전쟁 발발 후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공주형무소 재소자들

공주형무소 재소자와 일시 구금된 보도연맹원들이 희생된 장소는 충청남도 공주시 상왕동 산 29-19번지(일명 왕촌 살구쟁이)이다. 이곳은 금강을 따라 공주에서 대전으로 향하는 구 도로가에 위치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6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 충남 공주시 상왕동 29-19번지(왕촌 살구쟁이)에서 유해 발굴을 실시한 결과, 모두 3개의 구덩이에서 약 317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이 발굴에서는 민간인을 사살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M1 탄피 527개와 카빈 탄피 107개, M1 탄두 82개, 카빈 탄두 4개 등을 발굴하였다. 발굴 당시 유해

대부분은 구덩이 양쪽 벽을 향해 두 줄로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손이 뒤로 묶여 있거나 일부는 목뒤로 각지를 낀 상태로 발굴되었다. 이는 희생자들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사살되었음을 보여준다. 희생자는 모두 남성이며 나이는 치아의 발치 정도로 보아 대부분 20대 이상으로 희생규모는 최소 400명에서 최대 700명으로 추정된다.

6·25전쟁이 전후 한국 사회를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변화시킨 것처럼, 형무소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한국 행형 역사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았다. 전선은 여러 차례 바뀌었고, 한반도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전투가 이어지다가 국경은 비교적 변하지 않은 채 교착 상태로 끝났다. 이러한 격변으로 인해 화재, 인원 손실, 문서 압수 등으로 전시 형무소에 대한 대부분의 자료가 사라졌다.

행형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전쟁 초기 사건은 특별한 것을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다. 전쟁침략시기 형무소는 최종 처형 대상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고 격리하는 데 사용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 현대행형사를 서술하기 위한 큰 프로젝트는 전쟁의 모든 단계에서 형무소를 중심으로 한 학살이 만연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수용자 학살은 도피 기간에 잠재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급한 수단이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정된 이후 행형 질서를 재확립하는 수단이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영토를 수복한 후, 인민군에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협력한 사람들을 대규모로 투옥하고 처형하기 시작했다.

전쟁 초기, 북한군의 서울 침공과 한국군의 부산 후퇴로 인해 형무소는 정치범을 서둘러 학살하는 장소가 되었다. 북한군의 진격에 따라 각 형무소는 릴레이식으로 후방지역 형무소로 수용자를 호송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대구형무소, 마산형무소, 부산형무소로 집결하였으며 전국에서 피난을 온 형무관들과 함께 초과밀화된 형무소에서 전쟁기간 내내 의식주와 보건의료, 작업, 처우 등에 매달려야 했다. 전쟁 후기의 구금자 학살은 예방적 조치라기보다는 보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승만 정권은 인민군 점령지에서 서울을 탈환한 후 적을 도운 혐의를 받는 재소자들을 학살했다. 형무소는 인명 손실과 국토 파괴, 그리고 (암묵적으로) 독립된 국가 발전의 진전을 중단시킨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역할을 맡았다. 당국은 북한 인민군과의 협력 혐의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거쳐 대량 투옥과 처형을 통해 보복을 가했다.

다. 6·25전쟁으로 인한 형무소 피해

전쟁으로 부산과 마산의 최남단 시설을 제외한 거의 모든 형무소 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다. 재건은 1960년 후반까지도 부분적으로만 완료되었다.

CAC⁴⁾는 1950년 미 제8군과 유엔 공중보건복지단(UNPHWD)의 한국 재건 지원 활동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이 조직은 1951년 1월 유엔한국재건단(UNCACK)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1953년 9월 30일까지 '민간인의 질병, 기아, 보건을 예방하는' 임무를 주로 수행했다.

1951년의 전체 일일 평균 구금자 수는 1951년 15,874명에서 1952년 27,071명으로 증가했다가 1953년에는 17,277명으로 다시 감소했다.

1951년 11월에 정부가 두 번째로 대전으로 내려가면서 재소자 수가 급격하게 변동

했다. 1차 서울 탈환 이후 남쪽과 북쪽의 형무소 사이를 오가던 많은 재소자들이 미군과 국군이 38도선 이남으로 밀려난 후 다시 한 번 구금시스템이 개편되었다. 갑작스러운 수용자의 유입으로 일부 시설의 과밀과 보급품 부족이 악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각 형무소에는 장티프스 등 감염병이 만연하여 수많은 재소자와 형무관이 희생되기도 했다. 마산, 부산, 진주형무소의 총 수용인원은



1951년 부산형무소 수용상황

1,706명이었지만 4,679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었고 한 달 동안 24명이 사망했다고 보고했다. 부산형무소의 경우 특히 심각해 권장 수용 인원인 706명의 거의 5배인 3,470명의 재소자를 수용하고 있었다.

1953년 전쟁이 중단되었을 때 한국의 행형 인프라 대부분은 여전히 파손된 상태였지만, 재소자 수는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전쟁으로 인한 형무소의 광범위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목재와 유리 조달이 계속 어려웠지만, 재소자들의 노동이 재개되자 분위기는 낙관적으로 바뀌었다.

▶ 다음호에 이어서

4) CAC는 Civil Assistance Command의 약자로, 1950년 한국전쟁 당시 미 제8군과 유엔 공중보건복지단(UNPHWD)의 한국 재건 지원 활동을 통합하여 설립된 조직이다. 이 조직은 전쟁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의 민간인을 지원하고, 공중보건 및 복지 활동을 수행하며, 한국 사회의 재건을 돕는 역할을 했다. 특히 식량 배급, 의료 지원, 피난민 보호, 공공시설 복구 등을 담당하며 한국전쟁 중과 전후에 걸쳐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다.

마약류 수형자의 특징 및 이에 따른 치료적 정책 제언(하)



김창우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 교감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연구 대상자는 국내 K 지역 소재에 있는 3개의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류 사범이다. 마약류 사범의 죄명은 단순 투약, 제조, 판매, 제조/판매, 구매소지 등 다양하게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중 최소 1년 이상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남성 마약 사범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마약류를 사용한 적 없는 알선, 매매, 유통 관련 대상자는 배제하였고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거나 문장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자는 제외하였으며 연구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다.

2. 연구 절차

연구자가 대상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과 자료 활용 범위를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 90명에게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의 휴식 시간 중 연구자가 설문지 응답 방법에 관해 설명해 주었고, 연구자 입회 하에 5~6명씩 실시하였다. 90명의 대상자 중 무성의한 응답 및 누락된 문항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85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3. 측정 도구

연구 대상자들의 약물남용 위험도를 구분하기 위해 약물남용선별검사(DAST; Skinner, 1982)를 국내에 타당화한 한국형 약물남용선별검사 DAST-10(Drug Abuse Screening Test-10; Kim, 2014)를 사용하였다.



DAST-10은 술을 제외한 약물에 대하여 지난 과거의 경험이나 생각을 다루는 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에서 해당 여부에 따라 예(1점), 아니오(0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위험도가 높은 것이며, 총점 1~2점은 저위험군, 3~5점은 중위험군으로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고, 6~10점은 고위험으로 중독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이에 속한다(김용석, 2014). 본 연구에서의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625로 나타났다.

4.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약물남용의 심각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어느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관련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22.0을 이용하였다. 수입은 300만원 미만을 ‘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을 ‘중’, 500만원 이상을 ‘고’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마약류 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6>과 같다. 연령은 50대 이상이 34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4명(28.2%)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은 자영업/사업가 39명(45.9%), 단순노동자(청소/일용직) 21명(24.7%) 순이었다. 학력은 고졸이 38명(44.7%)으로 가장 많았고, 중졸 31명(36.5%) 순이었다. 월수입은 300만원 미만이 41명(48.3%)으로 가장 많았고,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명(27.1%)순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개신교 31명(36.5%)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21명(24.7%) 순으로 나타났고, 가족형태는 독거가 35명(41.2%), 부모동거 28명(32.9%) 순으로 나타났다.

<표6>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85)

항목		명(%)	항목		명(%)
연령	20대 미만	10(11.8)	월수입	300만원 미만(저)	41(48.3)
	30대	17(20.0)		300~500만원 미만(중)	23(27.1)
	40대	24(28.2)		500만원 이상(고)	21(24.6)
	50대 이상	34(40.0)	종교	개신교	31(36.5)
직업	농임어업	2(2.4)		불교	21(24.7)
	자영업/사업가	39(45.9)		천주교	16(18.8)
	생산직/기술직	10(11.8)		무교	16(18.8)
	피고용서비스업	8(9.4)		기타	1(1.2)
	단순노동자	21(24.7)	가족 형태	부부동거	8(9.4)
학력	기타	5(5.9)		부부·자녀동거	12(14.1)
	무학	2(2.4)		부모동거	28(32.9)
	초졸	3(3.5)		독거	35(41.2)
	중졸	31(36.5)		기타	2(2.4)
	고졸	38(44.7)			
	대졸이상	11(12.9)			

2. 마약류 사범의 약물관련 변인의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약물관련 변인의 특성 <표7>을 보면, 투약 기간은 3년 미만 35명(41.2%), 15년 이상 21명(24.7%) 순이었다. 약물 종류는 항정신의약품 44명(51.8%), 마약 25명(29.4%), 대마 15명(17.6%)이었고, 범수는 초범 37명(43.5%), 2~4회 16명(18.8%)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과 진료경험의 경우 진료경험이 있는 자는 63명(74.1%), 진료경험이 없는 자는 22명(25.9%)이었다. 마지막으로 형기는 4년 이상 33명(38.8%), 2년 이상~3년 미만 19명(22.4%) 순이고, 징벌 횟수는 0회 43명(50.6%), 1회 21명(24.7%) 순으로 나타났다.

〈표7〉 연구 대상자들의 약물관련 변인의 특성

(N=85)

항목		명(%)	항목		명(%)
죄명 분류	단순투약	48(56.5)	투약 기간	3년 미만	35(41.2)
	제조	3(3.5)		3년 이상~6년 미만	14(16.5)
	판매	25(29.4)		6년 이상~9년 미만	3(3.5)
	제조/판매	3(3.5)		9년 이상~12년 미만	4(4.7)
	구매소지	5(5.9)		12년 이상~15년 미만	7(8.2)
약물 종류	마약	25(29.4)	범수	15년 이상	21(24.7)
	향정신의학품	44(51.8)		무응답	1(1.2)
	대마	15(17.6)		초범	37(43.5)
	기타	1(1.2)		2~4회	16(18.8)
정신과 진료 경험	있다	63(74.1)	징벌 횟수	5~7회	11(12.9)
	없다	22(25.9)		8~10회	12(14.1)
형기	1년 이하	6(7.1)		10회 이상	9(10.6)
	1년 이상~2년 미만	14(16.5)		0회	43(50.6)
	2년 이상~3년 미만	19(22.4)		1회	21(24.7)
	3년 이상~4년 미만	13(15.3)		2회	9(10.6)
	4년 이상	33(38.8)		3회	1(1.2)
				4회 이상	11(12.9)

3.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특성

각 위험군에 해당하는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표8〉와 같다. 약물남용의 위험은 고 위험군이 36명(42.4%)으로 가장 많았고, 중위험군 32명(37.6%), 저위험군 17명 (20.0%) 순이고, 각 위험군 약물남용 선별검사의 평균 점수를 보면 저위험군의 1.29, 중위험군은 3.91, 고위험군은 6.92로 나타났다.

〈표8〉 약물남용 위험군 집단의 약물남용 선별검사 평균 점수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명(%)	17(20.00)	32(37.60)	36(42.40)
M(SD)	1.29(58)	3.91(81)	6.92(87)
		4.66(2.30)	

1)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

각 집단의 연령, 학력, 수입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지적되지 않았으나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에서는 20대(60.0%)가 가장 많고 40대(58.3%) 순이다. 학력에서는 초졸이하(60.0%), 중졸(45.2%) 순이다. 수입은 고(42.9%), 중(33.3%) 순이다. 중위험군의 경우 연령대는 30대(41.2%), 50대 이상(44.1%) 순이다. 학력은 중졸(41.9%), 초졸이하(40.1%) 순이다. 수입은 중(43.5%), 저(36.6%)순이다. 저위험군의 경우 연령은 30대(29.4%), 50대(23.5%) 순이다. 학력은 대졸이상(27.3%), 고졸(26.3%) 순이다. 수입은 고(23.8%), 저(21.7%) 순이다.

〈표9〉 약물남용 위험도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단위: 명, %)

구분		저위험군 (n=17)	중위험군 (n=32)	고위험군 (n=36)	χ^2	p
연령	20대 미만	2(20.0)	2(20.0)	6(60.0)	7.636	.266
	30대	5(29.4)	7(41.2)	5(29.4)		
	40대	2(8.3)	8(33.3)	14(58.3)		
	50대 이상	8(23.5)	15(44.1)	11(32.4)		
	초졸이하	0(0)	2(40.0)	3(60.0)		
학력	중졸	4(12.9)	13(41.9)	14(45.2)	3.705	.717
	고졸	10(26.3)	13(34.2)	15(39.5)		
	대졸이상	3(27.3)	4(36.4)	4(36.4)		
수입	저	7(17.1)	15(36.6)	5(23.8)	1.153	.886
	중	5(21.7)	10(43.5)	7(33.3)		
	고	5(23.8)	7(33.3)	9(42.9)		

2)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약물 관련 변인 특성

마약사범의 특성 가운데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라 약물 관련 변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 투약 기간($P<.001$), 정신과 진료($P<.001$), 징벌 횟수($P<.05$)에서 위험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지적되었다. 투약 기간이 길수록, 정신과 진료 경험이 많을수록, 징벌 횟수가 많을수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위험군의 투약 기간은 6년 이상 9년 미만(66.7%), 12년 이상 15년 미만(42.9%) 순이었다. 정신과 진료 경험(36.4%)과 징벌 횟수(27.9%)는 없는 경우가 많았다.

중위험군의 투약 기간은 9년 이상 12년 미만(50.0%), 3년 미만(45.7%) 순이었다. 정신과 진료 경험은 없는 경우(45.5%)가 많았고, 징벌 횟수는 1회인 경우(57.1%)가 많았다. 고위험군은 투약 기간은 3년 이상 6년 미만(71.4%), 15년 이상(57.1%) 순이었다. 정신과 진료 경험은 있는 경우(50.8%)가 많았고, 징벌 횟수는 4회 이상인 경우(54.5%)가 많았다.

〈표10〉 마약류 사범 특성에 따른 약물남용 관련 변인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단위: 명, %)

구분		저 위험군 (n=17)	중 위험군 (n=32)	고 위험군 (n=36)	χ^2	p
죄명 분류	단순투약	6(12.5)	18(37.5)	24(50.0)	9.826	.456
	제조	1(33.3)	1(33.3)	1(33.3)		
	판매	6(24.0)	10(40.0)	9(36.0)		
	제조/판매	1(33.3)	1(33.3)	1(33.3)		
	구매소지	3(60.0)	1(20.0)	1(20.0)		
	기타	0(0)	1(100)	0(0)		
투약 기간	3년 미만	10(28.6)	16(45.7)	9(25.7)	20.008	.029
	3년 이상~6년 미만	0(0)	4(28.6)	10(71.4)		
	6년 이상~9년 미만	2(66.7)	0(0)	1(33.3)		
	9년 이상~12년 미만	0(0)	2(50.0)	2(50.0)		
	12년 이상~15년 미만	3(42.9)	2(28.6)	2(28.6)		
	15년 이상	2(9.5)	7(33.3)	12(57.1)		
약물 종류	마약	3(12.0)	11(44.0)	11(44.0)	6.184	.186
	항정신의약품	10(22.7)	12(7.3)	22(50.0)		
	대마	4(26.7)	22(50.0)	3(20.0)		
범수	초범	11(29.7)	14(37.8)	12(32.4)	9.042	.339
	2-4회	2(12.5)	6(37.5)	8(50.0)		
	5-7회	3(27.3)	5(45.5)	3(27.3)		
	8-10회	1(8.3)	4(33.3)	7(58.3)		
	10회 이상	0(0)	3(33.3)	6(66.7)		
정신과 진료	있다	9(14.3)	22(34.9)	32(50.8)	8.549	.014
	없다	8(36.4)	10(45.5)	4(18.2)		

징벌 횟수	0회	12(27.9)	11(25.6)	20(46.5)	16.367	.037
	1회	1(4.8)	12(57.1)	8(38.1)		
	2회	2(22.2)	4(44.4)	2(22.2)		
	3회	1(100)	0(0)	0(0)		
	4회 이상	0(0)	5(45.5)	6(54.5)		

3) 약물남용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약물남용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11〉과 같다. 투약 기간과 범수는 정적 상관관계($r=.57$, $p<.001$)를 보였고, 정신과 진료 경험과 징벌 횟수($r=.22$, $p<.05$), 범수($r=.26$, $p<.05$)간에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투약기간과 범수와의 관계가 .5 이상으로 나타났으나($r=.57$, $p<.001$), 이는 두 변수가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보다는 시간에 따른 양적 관계를 갖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주요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11〉 약물남용 위험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간 상관

	X1	X2	X3	X4
X1	1			
X2	.1	1		
X3	-.06	.22*	1	
X4	.57***	.26	-.12	1

* $p<.05$, *** $p<.001$
X1: 투약기간, X2: 정신과 진료경험, X3: 징벌횟수, X4: 범수

약물남용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12〉와 같다. 회귀분석 결과, 범수만이 약물남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약 기간과 정신과 진료 경험 및 징벌 횟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범수가 높을수록 약물남용 위험이 유의미하게 큰 것으로 나타난 것을 통해($\beta=.24$, $p<.01$), 마약 관련 범죄 빈도가 높을수록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중독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예방적 조치가 취해질 여지가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표12〉 약물남용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N=85)

		<i>B</i>	<i>SE</i>	β	<i>t</i>
독립변수	투약 기간	0.05	.05	0.20	0.96
	정신과 진료 경험	0.35	.25	0.30	1.43
	징벌 횟수	0.07	.08	0.07	0.34
	범수	0.24**	.01	0.27	2.60
<i>F</i>		4.15**			
<i>R</i> ²		0.17			

*p<.05, **p<.01

V. 결론 및 논의

이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수용자의 약물남용 위험도에 따라 인구통계학적 특징과 약물관련 변인을 살펴보고, 이러한 특징을 근거로 재범의 원인을 감소 시키는데 보다 효율적인 개입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약류 수용자를 대상으로 약물남용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위험도를 3집단으로 구분하여 특성을 비교하였고, 약물남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와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으로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지적되지 않았으나 각 집단의 연령, 학력,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먼저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에서는 20대와 40대가 많았고, 학력에서는 초졸이하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졸이고, 대체로 고위험군은 학력이 낮았다. 수입은 상대적으로 500만원 이상이 많았다. 중위험군의 경우 연령대는 30대와 50대 이상에서 가장 많았고, 학력은 중졸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초졸 이하 순이었다. 수입은 300~500만원 미만이 많았다. 저위험군 집단의 연령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은 50대이다. 학력은 대졸 이상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고졸이었다. 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에서 명확한 패턴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다양한 연령과 학력, 수입 수준에서 고위험군이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 고위험군의 경우 연령대가 20대가 많았다는 점은 〈표4〉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연령별 현황에서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30대의 비중이 2021년 56.8%, 2022년도 57.2%를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약물남용 위험군에 따라 약물관련 변인을 교차 분석한 결과 투약 기간, 정신과 진료, 징벌 횟수에서 위험군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투약 기간의 경우 저위험군에서 고위험군으로 갈수록 투약 기간이 길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신과 진료 경험의 경우, 저위험군과 중위험군에서는 정신과 진료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고위험군은 상대적으로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았다. 징벌 횟수의 경우 저위험군은 없는 경우가 많았으며, 중위험군은 1회인 경우가 많았고, 고위험군은 4회 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신적 건강 상태와 처벌 경험의 위험도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약물중독 대상 중 49.2%가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영역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었으며, 약물중독 집단이 다른 이 중 진단 위험군이 될 가능성은 비교 집단에 비해 약 8배이며, 이 중 진단 대상이 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주요 영역은 불안, 강박증, 대인 예민성, 편집증, 정신증으로 나타났다(김남희 등, 2012)와 맥락을 같이한다. 또한 메스암페타민 남용 또는 의존 환자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이준우 등, 2004)와 흐름을 같이한다.

셋째, 약물남용의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투약 기간과 범수, 정신과 진료 경험과 징벌 횟수는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투약 기간과 범수의 정적 상관관계는 투약 기간이 길어질수록 범수 횟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속 경험이나 법적 처벌을 받은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이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마약류 범죄는 약물의 강한 중독성으로 인하여 단약이 쉽지 않아 재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이계성 등, 2016), 따라서 재범률이 높은 범죄라는 점(김은경, 2006)은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과 진료 경험과 징벌 횟수의 정적 상관관계는 정신과 진료 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이 더 많은 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한다. 정신과 장애로 인한 증상은 대표적으로 망상과 환각 및 비정상적인 행동과 언어 및 우울이나 불안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증상에 따른 불안정한 상태나 혼란은 수용실 내 다른 수용자와의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서 결국 징벌을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도소 내에서의 상습 문제행동은 수용자의 심리요인, 즉 정신병질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연구결과(이수정 등, 2009)를 지지한다. 또한 가석방의 중요한 준거가 되는 징벌 횟수와 정신병리가 상당히 관련되어 있기때문에 수형자들의 정신병리가 교정 장면에서 매우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고한 연구결과(이수정 등, 2000)와 같은 맥락을 가진다.

넷째, 약물남용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범수는 약물남용 위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정신과 진료 경험과 투약 기간 그리고 징벌 횟수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범수가 약물남용 위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으로부터 이전에 범죄를 저지른 횟수가 많을수록 약물남용의 위험도도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약물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며, 범죄경력 많은 대상자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와 예방 프로그램이 요구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정신질환 및 알코올/약물 사용관련 범죄자들의 재범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최초로 범죄시 치료적 개입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결과(이계성 등, 2016)와 부합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함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감안한 교정시설의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교육 대상인 최근 마약류 수형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꼭 필요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이봉한(2019)은 마약류 중독자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마약류 사범들을 이해하고 정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이지만, 이것은 현실정책으로 인해 아직까지 연구가 많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마약류 수형자의 약물남용 위험도에 따른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자료수집이 쉽지 않은 교정기관 내 마약류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이후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은 실천 및 정책적 함의이다. 첫째, 마약류 수형자들의 약물남용 위험도 관련 함의이다. 현재 마약사범 대상 치료프로그램은 마약류 수형자의 범죄 횟수, 재범위험성,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시간을 고려하여 기본·집중·심화로 3단계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마약류 사범인 경우 투약자가 아니더라도 수강명령이 있으면 단순 투약이나 판매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마약사범들은 각각 약물중독 경력이나 사회인구학적 특성, 범죄경력 등에 따라 단약의지, 단약가능성, 취업 가능성, 건강 상태, 가족지원 가능성 등에 매우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당연히 치료프로그램에 대한 마약류 수형자들의 욕구와 필요 내용도 차이가 있을수 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제시했듯이 수형자의 특성에 따라 약물남용의 위험성은 다르게 나타나며, 따라서 마약류 수형자의 약물남용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재범을 포함해 누범이 확인되는 마약류 수형자 관련 함의이다. 본 연구 결과

에서 제시하였듯이 범죄를 저지른 횟수는 약물남용 위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 관련 범죄 빈도가 높을수록 약물남용과 관련하여 중독 증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고 강한 중독성은 다시 재발로 연결되어 소위 말하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마약류 사범들에 대한 엄벌주의만으로는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집중된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중독 증상과 범죄 횟수에 따른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경미한 단순투약자나 최초의 마약범죄가 일어났을 시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또한 누범이 확인되거나 예상되는 마약류 수형자, 특히 중증 투약 사범에 대하여서는 보다 강력한 수준의 치료감호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반드시 치료의 완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엄격한 수준의 강제성을 띤 치료적 후속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누범이 확인되는 마약류 수형자의 출소 이후 관련 함의이다. 약물남용의 위험은 가변적이며, 마약류 수형자가 출소 이후 처하게 되는 상황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약물남용의 위험은 더욱 개인의 힘으로 통제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누범이 확인되는 마약류 수형자들은 출소 이후에 중독 증상과 갈망에 의해 약물남용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이 교정시설 내에서 받은 치료프로그램이 출소 후 지속될 수 있도록 연계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기관과 수사 기관의 공조된 정책이 필요하며,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협조체계가 긴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를 아우르는 관계 협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한계를 밝히고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 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는 연구대상자들이 자기 보고식으로 보고한 내용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자들이 자신에 대한 통찰 등 이해에 따라 신뢰도가 낮을 위험이 있다. 추후에는 보다 객관적인 기록 자료를 토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집의 문제이다. 즉 특정 지역의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남성 수형자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이므로 이를 모든 마약류 사범에게 일반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향후에는 연구 대상자의 표본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여성 마약류 수형자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성경/양동현/문진영, (2016), '마약중독자들의 재발경험에 대한질적 내용분석 연구', 교정 연구, 제26권 제1호, pp.89-114, 한국교정학회.

강철원/안아람/손현성/김현빈, (2019), 중독 인생, 북콤다.

김남희/서정민, (2012), '마약류 사범의 약물중독, 알코올 의존, 정신질환 특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40권 4호, pp.175-204,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김성이, (2002), 약물중독 총론, 양서원.

김은경, (2005), '마약류 사용 사범에 대한 형사절차상 치료적 개입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pp.17-29, 형사정책연구원.

_____, (2006), '한국 마약류 사범 특성 연구', 형사정책연구, 제17권 제1호, pp. 301-338, 형사정책연구학회.

김용석, (2014), '한국판 약물남용 선별검사-10(DAST-10) 검증', 사회봉사연구, 40권 2호, pp.232-241, 사회봉사 연구회.

김지웅/김상은, (2023),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미국과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문화와 융합, 제45권 3호, pp.470-479, 한국문화융합학회.

김주은, (2020), '마약중독의 근거 기반 치료', 임상심리학회지, 제39권 2호, pp.186-202, 한국임상심리학회.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2023), 보호관찰과 내부자료.

법무부 교정본부, (2023), 교정통계 연보.

박성수/백민석, (2019), '국내외 마약 문제 분석을 통한 마약 피해지수 개발', 국가정책연구, 제33권 2호, pp.209-227,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_____/안상원, (2021), '마약류 범죄자의 효율적인 처우방안을 위한 유형 및 특성 분석', 한국중독범죄학회보, pp.42-43, 한국중독범죄학회.

박선아, (2008), '악물사범의 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상태특성분노, 자아존중감,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진실, (2017), '마약류 사범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사례 및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법학, 제19집 3호, pp.187-220, 중앙법학회.

박현나, (2022), '외국의 마약류중독 수형자를 위한 교정시설 내 치료 프로그램: 미국, 캐나다, 호주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제16권 1호, pp.1-27, 아시아교정포럼.

성경숙, (2021), '마약류 사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처우제도의 개선방안 - 미국의 약물 치료법원(Drug Treatment Court)과 LEAD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51집, pp.255-291, 숭실대학교법학연구소.

신선희, (2022), '마약중독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22권9호, pp.712-726, 한국콘텐츠학회.

심혜인/이은주, (2021), '수형자 재범예측을 위한 수형자 분류 평가도구 비교연구', 제31권 3호, 교정연구, pp.48-54, 한국교정학회.

_____, (2023), '마약류 사범 재범방지를 위한 해외 교정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월간교정, 2월, pp.3-15, 법무부.

손외철, (2011), '치료감호 가중료자의 재범요인과 재범률 감소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1호, 한국범죄심리학회.

윤혜진, (2016), '집중명상프로그램이 마약중독자의 갈망, 자아존중감 및 단약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불교학보, pp.285-313,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이계성/천영호, (2016), '정신질환 및 알코올/악물 사용 관련 범죄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 중독정신의학, 제20권 1호, pp.3-9,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래나, (2017), '마약사범의 성격요인이 재범여부에 미치는 영향 PAM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봉한, (2019), '마약류 범죄의 추세와 전망', 한국중독범죄학회보, 제9권 제4호, pp.134-144, 한국중독범죄학회.

이수정/서진환/이윤호, (2000), 'MMPI 점수로 본 교도소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문제 실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제19권 2호, pp.43-62, 한국심리학회.

_____/김민정, (2009), '수용자 문제행동과 PCL-R로 측정한 정신병질적 특성과의 관련성', 한국범죄학, 3권 2호, pp.67-102, 대한범죄학회.

이호, (2019), '수용전념치료(ACT)가 알코올중독자의 심리적 유연성과 자기 자비 및 회복에 미치는 효과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12호, pp.604-614, 한국콘텐츠학회.

이춘우/권성민/조성남/권도훈/임효덕/이성국, (2004), '메스암페타민 사용 환자의 정신과적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물치료정신의학, 제10권 제1호, pp.56-67, 대한생물치료정신의학회.

유숙경/이삼영, (2023), '남성 마약류 중독자의 애착 외상으로 인한 중독과 회복 경험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교정연구, 제33권 2호, pp.59-63, 한국교정학회.

홍경아, (2023), '마약류 중독 실태와 대응 방안 - 중독경험자와 마약 전문가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부식/황인옥, (2017), '악물중독자의 회복 및 사회복귀에 관한 사례연구 -서울·부산지역 NA모임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10권 1호, pp.91-116,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장성원, (2011), '미국의 약물정책 -악물범죄에 대한 투쟁 및 치료 처우를 중심으로-', 경찰 논총, 제3권 2호, pp.161-221,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장희숙, (2008), '재범요인과 범죄유형별 특성', 교정연구, 제39권, pp.163-190, 한국교정학회.

주영준, (2015), 'NA 한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성권, (2012),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 조직의 상호연계', JPI정책포럼, 제28권 11호, pp.1-19, 제주평화 연구원.

조성남, (2013), '우리나라 약물중독의 치료 실태와 대책', 의료법학, 제14권 1호, pp.11-36, 대한의료법학회.

차명희, (2021), '악물 중독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민간서비스 비교: 한국과 일본의 중독대처를 중심으로', 교정담론, 제15권 3호, pp.31-55, 아시아교정포럼.

APA, (2013),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DSM-5(권준수/김재진/남궁기/박원명 역), 서울: 학지사.

■ 외국문헌

De Leon, (2000), Therapeutic Communities:Theory, Model and Method, New, York, NY: Springer Publishing Company.

Jordan B. Charnetsky, (2018), Revolutionizing Fractured Drug Courts: An Analysis and Critique of LEAD and CARA, 68 Syracuse L. Rev. 455, pp.470.

Mary Velan, (Jan. 13,2016), What Makes Seattle's LEAD Program so Effective?, EfficientGov.

U.S. Department of Justice, (2004), Drug Courts Standards Committee, Defining Drug Court The Key Component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Drug Court Professionals, pp.6-23.

The Defender Association, (2010), 'Law Enforcement Assisted Diversion (L.E.A.D.): A Pre-Booking Diversion Model for Low-Level Drug Offenses'.

■ 기타자료

마약퇴치운동본부, <https://www.drugfree.or.kr> (검색일 : 2023. 12. 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 : 2023. 12. 01.).

통계청, <https://www.kostat.go.kr> (검색일 : 2023. 12. 02.).

세계보건기구, <https://www.who.int> (검색일 : 2023. 12. 02.).

성범죄자 범죄성향 개선을 위한 치료프로그램 효과분석(하)

- 서울지역 심리치료센터 한곳의 치료사례를 중심으로 -



김용희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보안과 교감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성범죄로 교정기관에 수용 중인 19세 이상 성인 남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자들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교정기관에서 성범죄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심화 심리치료를 받기 위해 전국에서 선발되어 S심리센터에 집금되었던 32명의 수형자 중에서, 싸움 및 징벌로 탈락하거나 한글 미해독자를 제외한 24명이 최종분석에 포함되었고, 집단치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10개의 사전·사후 척도를 사용하였다. 모든 평가는 본 연구자를 포함한 임상심리사, 치료담당 직원이 실시하였으며, 척도검사를 시작하기 전 제공된 정보가 연구에 사용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참여자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동의서와 서약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연령과 학력, 본건 당시 직업, 고용형태, 혼인상태, 이수명령 처분에 대해 확인하였다. <표 2 참조>

2. 연구 절차

연구 대상자들은 2015년 하반기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선발된 성범죄자들로 S심리센터에 집금되어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성범죄자대상 집단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후 원래의 기관으로 환소한다.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60회기(주당3회기, 회기 당 150분, 총150시간)로 구성된 구조화된 프로그램(법무부, 성폭력심화치료 매뉴얼, 2016)으로 이루어졌으며, 1회기 시작 전에 자필서명으로 받은 연구동의서 작성 및 사전검사 척도를 실시하였고, 60회기를 마친 이후에 사후검사 척도를 실시하였다. 집단치료프로그램에 참여한 전체 성범죄자 중 연구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한 32명 중 징벌 등으로 중도 탈락한 8명을 제외한 24명이 연구에 포함되었으며, 프로그램 수료 후에 인터뷰에 최종 동의한 3명을 대상으로 질적 면담을 실시하였다.



〈표2〉 인구학적 특징

연도	구분	빈도(명)	백분위(%)
연령	25세 미만	1	4.16
	25세 이상 ~ 40세 미만	9	37.5
	40세 이상 ~ 55세 미만	11	48.8
학력	55세이상	3	12.5
	초졸	5	20.8
	중졸/고교중퇴	6	25
	고졸	10	41.6
직업	초대졸 이상	3	12.5
	노동자	9	37.5
	자영업	7	29.1
	스포츠센터/연구원/요식업	3	12.5
고용형태	무직	5	20.8
	정규직	3	12.5
	비정규직	14	58.3
	일용직	2	8.3
혼인상태	무직	5	20.8
	유배우자	1	4.2
	이혼	4	16.6
이수명령	비혼	19	79.2
	없음	12	50
	100시간 미만	10	41.6
	100시간~200시간 미만	1	4.16
	200시간~300시간 미만	0	0
	300시간 이상	1	4.16

3. 집단치료 프로그램

1) 프로그램 구성내용

본 연구의 집단치료 프로그램은 좋은 삶 모델(Good Lives Model: GLM) 접근을 토대로 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성범죄자의 역동적 위험요인에 초점을 둔 10개의 모듈로 구성되었다. 한 집단에 10여 명의 대상자가 참가하였으며 치료자는 2명

(주 및 보조치료)이 투입되었다. 치료자는 임상심리사이며 성범죄자 치료관련 교육을 이수한 본 연구자가 직접 진행하였다.

구성내용을 보면 다음의 〈표 3〉에서 전반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모든 프로그램에서 좋은 삶 모델 접근의 방향에 따라 10개의 모듈이 진행되었으며, 집단의 역동에 따라 모듈의 순서는 일부 조정하였고, 모듈별 회기에 있어서도 1~2회기 정도 확장 혹은 축소하여 60회기 이내에서 탄력성 있게 조절 운영하였다.

〈표3〉 집단치료 프로그램 내용

연도	구분	백분위(%)
1~4	프로그램 이해	- 집단에 대한 이해
		- 집단 참여방법 이해(규칙, 서약서, 자기소개, 별칭짓기)
		- 의사소통의 방법 이해
5~13	좋은 삶 계획하기	- 좋은 삶 필요성 및 구성요소 이해
		- 변화동기 갖기
		- 좋은 삶 영역 이해하기
14~17	자아존중감	- 좋은 삶 목표세우기 및 실천계획(좋은삶 수레바퀴, 스마트한 계획표 작성)
		- 자아존중감 이해 및 높이기
		- 자신의 장점표현 및 긍정적 자아상찾기
18~23	나의발자취 (자서전)	- 칭찬사워하기
		- 인생의 난관 취약성 이해와 난관극복의 내적요인 이해
		- 자서전 나눔을 통한 집단 상호간 친밀감 향상
24~25	감정 이해하기	- 감정에 대한 이해
		- 사고와 감정에 관계 이해하기
		- 대인관계 패턴 인식하기
26~33	대인관계	- 친밀감, 고립감, 갈등에 대한 이해 및 대처방안
		- 친밀감 방해요인 및 향상시키는 방법 이해
		- 건강한 성, 책임감 있는 성에 대한 이해
34~38	건강한 성	- 정상 및 일탈적 성 구분하기
		- 이성관계에서 아름다운 성 이해하기
		-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 취약한 배경요인 이해
39~45	사건분석	- 사건을 가속시킨 즉시적요인 및 촉발요인 이해
		- 재범을 방지할수 있는 대처방안 마련
		-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 향상
46~49	공감	- 피해자(자신의 피해자 포함)에 대한 공감

50~56	자기관리	- 감정, 생각, 행동에 대한 이해 및 스트레스 대처방안
		- 중독의 폐해 및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알기
		-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 훈련
57~60	좋은 삶 만들기	- 출소후 행복한 삶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 출소후 예상되는 어려움 및 대처방안 구축 (신상정보 공개, 고지, 전자장치부착등)

2) 재범위험성 평가와 저·중·고 위험군 분류

고위험군의 성범죄자들에게는 300시간의 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여기서 고위험군과 중·저위험군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성범죄자들은 재범위험성에 따라 저, 중,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되는데, 저위험군은 재범률이 낮고 치료적 역할이 적다. 하지만 고위험군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기에 장시간에 걸쳐 집중적이고도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집단이다(Wakeling, Mann, & Carter, 2012).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로는 Static-99(Hanson & Thornton, 2000)과 HAGSOR(조은경 등, 2014)가 사용되는데, Static-99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적위험요인 평가도구로 10개 항목 검사지에 범죄자의 연령과 결혼 그리고 동거인 여부 등의 생활관계와 과거범죄전력, 범죄내용, 피해자의 유무 및 관계 등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점수화하여 항목별로 부여하고 이를 합산하여 위험도를 측정하는 것이고, HAGSOR는 정적 위험요인 평가 10문항으로 출소 예정 나이, 첫 성범죄 연령, 성범죄 유죄 선고 횟수, 비성적 폭력범죄, 보호관찰/집행유예 위반 여부, 피해자 관계 등을 평가하고, 역동적 위험요인 평가는 13문항으로 성일탈적 생활양식, 성적강박성, 인지왜곡, 대인관계 공격성, 감정통제, 약물남용, 충동성 등을 평가하여 Static-99은 합계점수가 6점 이상, HAGSOR는 합계점수 9점 이상 동시에 충족하고, HAGSOR 2차평가(역동적 위험요인)에서 9점 이상이 되면 고위험군 성범죄자로 분류된다.

교정시설에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 교육은 기본, 집중, 심화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재범위험성을 평가하여 저·중·고로, 그리고 이수명령 시간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분류하고 교육시간은 기본의 경우는 100시간, 집중은 200시간, 심화는 300시간을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교육진행은 집중과 심화프로그램의 경우는 자체강사인 담당직원이 진행하고 있으며, 기본프로그램은 자체강사와 외부강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자체강사의 경우, 2011년 심리치료센터가 처음 개소할 당시 임상심리전문가와 상담심리전문가를 특별 채용하여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교정기관에서 성폭력사범 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성훈련을 기본과 고급과정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외부 위탁기관을 통해 심리치료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연2회 사례회의를 실시하여 실제 치료프로그램을 진행한 내용을 가지고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슈퍼비전을 가지는 시간을 진행하고 있다.

<표4> 저·중·고위험군 분류

구분		기본교육	집중교육	심화교육
교육 대상	재범 위험성	저	중	고
	이수명령 시간	100시간 이하	101~200시간	200시간 이상
교육시간/기간		100/1~3개월	200/3개월	300/6개월
교육인원		10~12명	10~12명	10명기준
교육진행		자체강사, 외부기관	전담 자체강사	전담 자체강사
교육기관		전국교정기관	집중교육기관	심리치료센터

* 2025년 현재는 기본교육 60시간, 집중교육 100시간, 심화교육 300시간

4. 측정 도구

측정 도구로는 10개의 척도(226문항)를 사용하였는데, 사전검사는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전에 실시, 사후검사는 프로그램 종료 후 사후면담 시에 실시하였던 바, 개 인차가 어느 정도 있기에 설문 완성하는 데는 40~8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1) 범죄력 및 범죄관련 요인

연구대상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공식적인 범죄기록 및 개인면담 내용 등을 바탕으로 분석되었는데, 모든 자료에 대한 평가와 분석 및 개인면담은 본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다. 범죄력은 교정기관의 공식자료를 통해 형기와 범죄횟수, 수용횟수, 총 유죄선고 횟수가 분석되었다.

2)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가 개발, 전병제(197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병제(197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가 .85이었다.

3) 강간통념

강간통념에 대한 수용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urt(1980)가 개발하고 이석재(1999)가 수정하고 보완하여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석재(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다.

4) 상태특성-분노표현척도

분노표현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 등(1988)이 개발한 상태 특성 분노표현 척도를 전검구, 한덕웅, 이장호(1997)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검구 등(1997)의 연구에서 문항 간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3(분노표출), .78(분노억제), .79(분노통제)이었다.

5) 충동성척도

충동성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Barratt(1959)이 개발한 충동성 척도-II를 이현수(1992)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현수(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4이었다.

6) 아동성추행 척도

Bumby(1996)가 개발한 척도로서 아동 성추행을 허용하는 왜곡된 태도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자가 소속된 상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번안하여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문항을 수정,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Bumby(1996)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4였다.

7) UCLA 고독감척도

외로움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Russell, Peplau와 Cutrona(1980)가 개발한 UCLA Loneline Scale을 김옥수(1997)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하여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옥수(1997)의 연구에서 전체 문항의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3이었다.

8) 성을 이용한 대응척도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에서 성과 관련된 생각이나 행동을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고 강제적인 성적행동에 동의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Cortoni와 Marshall(2001)이 개발한 척도로 본 연구자가 소속된 상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번안한 후 수용자들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하여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검토한 후 사용하였다. Cortoni와 Marshall(2001)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8이었다.

9) 대인반응성 척도

인지적 및 정서적 영역을 포함하여 일반적 공감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Davis(1983)가 개발한 척도로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다. Davis(1980)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70~.78이었다.

10) 여성에 대한 분노척도

남성이 여성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적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와 신념을 측정하기 위해 Check(1984)가 개발한 척도를 본 연구자가 소속된 상위기관에서 자체적으로 번안한 후 수용자들에게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 문맥이 매끄럽지 않은 문항을 수정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작업한 후 사용하였다. Check(1984)의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80이었다.

11) 주관적 안녕 척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Cambell(1981)의 현재 자신의 삶의 질에 인지적 평가를 측정하는 주관적 안녕감의 인지적 부분과 Diener와 Lucas(2000)가

개인이 경험하는 10개 정서들을 평정하여 행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부분을 측정하는 척도를 변안하여 하나로 통합하여 한덕웅과 표승연(2002)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덕웅과 표승연(200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주관적 안녕 인지), .92(주관적 안녕 정서)이었다.

5.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1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범죄력, 범죄관련 요인, 정신병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기술통계를 사용하였고, 프로그램의 처치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프로그램 시작 전후에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를 실시한 후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집단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 결과

1.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범죄관련 요인 분석 결과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관련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성범죄 피해자는 전부 여성(100%)이었고, 이번 사건 피해자의 수는 1명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87.5%) 2명인 경우는 많지 않은(12.5%) 것으로 나타났고, 3명 이상인 경우는 없었다. 피해자와 관계에서 면식인 경우가 11명(45.8%)으로 나타났고, 비면식이 13명(54.2%)으로 약간 많았으며, 친족여부는 비친족이 대부분(95.8%)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족의 경우도 1명(4.2%) 있었고, 범죄에서 공범은 전부 없었다. 본 범죄 이전의 동종범죄는 19명(79.2%)으로 이중 본건 포함 3범 이상이 13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종범죄 기간은 13~36개월 이하가 6명(31.6%)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12개월 이하(26.3%)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기간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본 범죄 이전의 이종범죄는 19명(79.2%)으로 동종범죄와 같으며, 기간에 있어서도 12개월 이하, 13~36개월 이하, 85개월 이상이 모두 5명(26.3%)으로 같았으며, 동종범죄와 마찬가지로 거의 같은 기간에 발생된 것으로 알 수 있다.

<표5> 범죄관련 요인

항목	구분	빈도(명)	백분위(%)
피해자 성별	남	0	0
	여	24	100
면식여부	면식	11	45.8
	비면식	13	54.2
친족여부	친족	1	4.2
	비친족	23	95.8
공범여부	없음	24	100
	있음	0	0
동종범죄	초범	5	20.8
	재범	6	25
	3범 이상	13	54.2
동종범죄 기간 (n=19)	12개월 이하	5	26.3
	13~36개월 이하	6	31.6
	37~60개월 이하	3	15.8
	61~84개월 이하	2	10.5
	85개월 이상	4	21.1
이종범죄	없음	5	20.8
	있음	19	79.2
이종범죄 기간 (n=19)	12개월 이하	5	26.3
	13~36개월 이하	5	26.3
	37~60개월 이하	1	5.3
	61~84개월 이하	3	15.8
	85개월 이상	5	26.3

2. 좋은 삶 모델 중심 집단치료 사전-사후 효과

성범죄자의 역동적 위험요인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고위험군의 성범죄자에게 좋은 삶 모델을 중심으로 실시한 집단치료의 사전-사후 검사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집단치료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왜곡된 태도영역에서 강간통념은 유의미한 긍정적 변화가 있었고(t=3.97, p<.001), 여성에 대한 분노도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t=-4.62, p<.001).

두 번째로 성적관심 영역에서 아동성추행 척도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성대응 척도는 사전에 비해 사후에 낮아지기는 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적대응에 대한 경향성은 보여주었다.

세 번째로 사회-정서적 기능에서 자아존중감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t=-4.09$, $p<.001$) 변화가 있었으나, 고독감은 사후에 낮아지기는 했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대인반응성 전체와 하위요인인 조망-수용, 환상-공감, 공감적 염려, 개인적 고통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자기관리 영역에서는 충동성 총점에서 유의미한($t=2.88$, $p<.001$) 차이가 나타났다으며, 하위요인에서 인지충동성과 무계획 충동성은 유의미한($t=3.72$, $p<.001$, $t=2.28$, $p<.01$)차이가 있었으나, 운동충동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분노표현에서는 분노표출과 억제는 약간 낮아지고, 통제는 약간 높아졌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주관적 안녕감에서는 총점에서부터 유의미한($t=-4.73$, $p<.001$) 차이가 있었으며, 주관적 안녕 인지 및 정서에서도 유의미한($t=-4.28$, $p<.001$, $t=-4.11$, $p<.001$)차이가 나타났다.

〈표6〉 집단치료 사전-사후 평가점수 비교(N=24)

		M	SD	t	p
왜곡된 태도	강간통념 전	54.75	30.43	3.97***	0.00
	강간통념 후	33.42	14.32		
	여성분노 전	11.00	4.57	-4.62***	0.00
	여성분노 후	15.42	3.50		
성적 관심	아동성추행 전	51.17	14.19	1.44	0.16
	아동성추행 후	47.63	8.46		
	성대응 전	21.75	7.33	1.99	0.06
	성대응 후	19.04	3.62		
사회-정서적 기능	자아존중감 전	26.96	5.31	-4.09***	0.00
	자아존중감 후	30.63	4.70		
	고독감 전	39.71	13.10	1.43	0.17
	고독감 후	36.17	8.64		
	대인반응성 전	61.29	9.86	0.45	0.66
	대인반응성 후	60.38	14.32		

사회-정서적 기능	조망수용 전	15.25	3.47	-0.56	
	조망수용 후	15.88	4.23		
	환상공감 전	14.67	5.72	1.01	0.32
	환상공감 후	13.83	5.15		
	공감적 염려 전	18.08	3.63	-1.67	0.11
	공감적 염려 후	19.21	3.98		
	개인적 고통 전	13.29	4.76	1.68	0.11
	개인적 고통 후	11.46	4.64		
자기관리	충동성 전	36.35	12.60	2.88**	0.01
	충동성 후	29.52	11.55		
	인지 전	10.96	3.16	3.72***	0.00
	인지 후	8.63	3.15		
	운동 전	10.71	6.37	1.15	0.26
	운동 후	9.25	5.62		
	무계획 전	14.70	5.42	2.28*	0.03
	무계획 후	12.17	4.50		
	분노표현 전	14.29	3.57	1.81	0.08
	분노표현 후	12.54	3.12		
	분노억제 전	13.33	4.53	0.80	0.43
	분노억제 후	12.67	2.62		
	분노통제 전	19.63	6.60	-0.44	0.67
	분노통제 후	20.21	5.58		
	주관안녕 전	-16.25	22.5	-4.73***	0.00
	주관안녕 후	5.50	25.4		
	인지 전	-6.25	9.77	-4.28***	0.00
	인지 후	1.54	9.68		
	정서 전	-10.00	15.1	-4.11***	0.00
	정서 후	3.96	17.5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만19세 이상 고위험군 성범죄자중 24명을 대상으로 범죄관련 요인의 특성 및 좋은 삶 모델 접근을 토대로 한 치료프로그램과 수료 후 인터뷰를 통해서 집단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살펴보았으며 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고위험군 성범죄자의 특성을 집단치료를 받기 위해 선발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었다. 치료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범죄자들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고 잘못된 강간신화나 강간통념, 여성에 대한 분노 등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하였다고 하며,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편견으로 낙인찍었던 성범죄자들을 인간중심이론 관점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재범요인과 관련된 범죄자의 특성을 파악해 볼 수 있었던 중요한 기회였다.

둘째, 성범죄자에게 좋은 삶 모델에 근거한 집단치료프로그램이 범죄유발요인을 점검하고 그것을 낮추는 데 효과가 있었다. 범죄 유발요인을 저하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모듈구성이나 진행방식 등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대부분 잘못된 행동을 수정한다는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범죄유발요인 외에도 성범죄자가 스스로 가지는 삶의 목표나 개인의 장점등을 고려, 치료와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을 강조했을 때 변화에 더욱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물론 집단치료 효과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와 치료프로그램 이수자 재범률 추적연구 또한 더 필요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프로그램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설계에서 실험집단의 결과만 제시하게 되어 비교할 수 있는 대조집단이 없는 것이다. 다른 종류의 집단치료를 받은 집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는 집단과 어떤 차이가 나는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집단치료방식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치료효과를 검증하고 있어 수용시설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대상자들이 일정한 흐름에 따라 대답하는 반응경향성을 보이거나 자기이해와는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답변을 하는 등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구조화된 면접도구를 사용 평가하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

셋째, 성범죄자 특성과 수준에 맞는 치료기간 선정과 교육생 선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간 대인관계가 단절되거나 고립된 생활을 해왔던, 성인지 왜곡이 심각한 성범죄자들을 단 몇 개월 치료프로그램을 통해 인지왜곡을 바로잡는 일은 결코 쉽지가 않다. 현재 사용 중인 프로그램 매뉴얼에는 활동지를 이용한 작업이 많은데, 무학자나 한글 미해독자의 경우는 그들의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진행함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사후 치료프로그램이나 출소 후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현재 교정 시설에서 실시하고 있는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은 재범위험성의 여부에 따라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자가 치료프로그램을 하면서 그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면 치료프로그램 후 작은 변화라든가 효과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장기형을 선고받은 경우 법원의 이수명령에 따라 일찍 치료프로그램을 수료했다면 출소 때까지 전혀 다른 후속 치료프로그램이 없고, 출소 후에도 그와 연계된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에 대한 정부주도의 제도마련이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성범죄자 범죄성향을 개선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여 행복하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치료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강정희 (2014). 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해수, 이은아 (2014). 좋은 삶 모델에 기반한 수감명령프로그램이 비행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공감, 자기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27-138.

대검찰청 (2017). 범죄분석.

류여해 (2010). 교정시설의 성범죄자 재범방지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47호.

박옥임 등 (2004). 성폭력 전문상담. 서울: 시그마프레스.

변혜정 (2004). 성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반성폭력 운동 단체의 성정치학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0(2).

신기숙 (2017).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및 집단치료 효과. 아시아교정포럼.

윤가현 (1998). 성문화와 심리. 학지사.

윤정숙, 박정일, 여운철 (2011). 성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연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실태조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

윤정숙, Knight, R. A. (2014).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방안(II): 교정시설내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윤정숙, 이수정, Marshall, W. L., & Knight, J.S., 김일수 (2012). 성범죄자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제도방안(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442.

윤정숙, 이수정 (2012).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주요원칙과 방향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1(3), 847-875.

이수정 (2007). 국내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 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조사. 법무부: 성범죄자 치료처우 방안모색을 위한 미국의 성폭력 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실태연구, 4-139.

이수정, 고려진, 박혜란 (2008). 한국 성범죄자위험성 평가 도구 개발 및 타당도 연구. 형사정책연구, 19, 309-345.

이은아 (2014). 좋은 삶(Good Lives Model)을 적용한 보호관찰청소년 수감명령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분석.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유희 (2014). 좋은 삶 모델을 적용한 성인 성범죄자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번역서

Pamela M.Yates, David S, Prescottt, Tony Ward 공저(2016). 성범죄자 치료(신기숙, 심진섭, 이종수, 이지원, 전은숙 공역)

William L. Marshall, Liam E. Marshall등. 성범죄자 심리치료 통합적 접근(김덕일, 송원영 공역)

■ 외국문헌

Abel, G. G., & Rouleau, J. L. (1986). Sexual disorders. In G. Winokur & P. Clayton(Eds.) *The medical basis of psychiatry* (pp. 246-267). Philadelphia: W. B. Saunders.

Anderson, D., & Dodgson, P. G. (2002). Empathy deficits, self-esteem, & cognitive 100 distortions in sexual offenders. In Y. M. Fernandez(Ed.), *In their shoes: Examining the issue of empathy and its place in the treatment of offenders*, 73-90. Oklahoma City, OK: Wood 'N' Barnes Publishing.

Ford, M. E., & Linney, J. A. (1995). Comparative analysis of juvenile sexual offenders violent nonsexual offenders, and status offend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 56-70. Press.

Groth, A. N. (1986). *"The Incest Offender in Sgroi."* In S. M.(ed), *Handbook of Clinical Interventions of Sexual*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Hanson, R, K., & Thornton, D. (2000). *"Improving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 comparison of three actuarial scales"*, *Law and Human behavior*, 24(1), 119-136.

Marshall, W. L. (1971). A combined treatment method for certain sexual deviations. *Behaviour Research and Therpy*, 9, 293-294.

Marshall, W. L. (1993). The role of attachment, intimacy, and loneliness in the etiology and maintenance of sexual offending. *Sexual and Marital Therapy*, 8, 109-121.

Hanson, R, K., & Thornton, D.(2000). *"Improving risk assessments for sex offender: A comparison of three actuarial scales"*, *Law and Human behavior*, 24(1), 119-136.

Holmes, S. T., & Holmes, R. M. (2002). *Sex crimes, Patternsand behaviors*, 173, Sage Publications.

Tangney, J. P. & Dearing, R. L. (2002). *Shame and guilt*. New York: Guildford Press.

Tice, D. M., & Baumeister, R, F. (1990). Self-esteem, self-handicapping, and self-presentation: The strategy of inadequate practice practice. *Journal of Personality*, 58, 443-464.

Ward, T. (2002). *"Good lives and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Promises and problems"*. *Aggression and Vioient Behavior*, 7, 513-528.

Ward, T., Marshall, W. L. (2004). "Good lives, aetiology and the rehabilitation of sex offender: A bridging theory", *Journal of Sexual Aggression*, 10, 153-169.

Ward, T., & Beech, A. (2006). An integrated theory of sexual offending.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11, 44-63.

대마초 사용자들의 강성 마약류 사용과 중독 과정에 대한 사례 연구(상)



유숙경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목차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연구 결과
- V. 논의 및 제언

참고문헌

국문요약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비범죄화되는 나라가 늘어나고, 한국에서도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마초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지를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 마약으로 이전한 경험이 있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대마초 사용 과정과 내용 그리고 강성 마약으로 이전하게 된 과정과 맥락 등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자는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마약류로 입문한 경험이 있는 13명으로 이들은 마약류 중독에서 회복되어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회복자들이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를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22개의 개별주제 압축하여 이를 9개의 주제 범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의 분석 단위는 강성 마약 사용 계기와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로 나누어,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강성 마약 사용 계기의 개인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상승 욕구, 마약 사용 집단에서의 지위 향상, 마약 경각심 실종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으로는 마약 시장의 뒷에 빠짐, 치료 시스템의 부재,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로 나타났다.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의 개인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노예화,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에는 마약 사용과 밀매자의 이중 지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 사범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 처우와 중독 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대마초 비범죄화, 강성 마약, 관문 이론,
의료용 대마초, 기호용 대마초



1. 서론

대마초는 인류 역사에서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식물 중 하나로, 식용 및 약용 뿐만 아니라 섬유,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Ahmed et al., 2015:123-130; Musio, MuSsig & Amaducci, 2018:487-495). 특히 대마 탈각 종실(헵프씨드너트)은 영양성과 기능성이 우수하여 식품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Randall, 2007:590). 의약품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 대마 씨앗(마자인)과 대마 오일(채유오일)은 소갈증, 난치성 변비, 피부 질환, 월경 불순 및 이질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대마피는 어혈을 풀고 타박상을 치료하며 결석 제거 용도로도 활용되었다(Bae, Song, Choi, Kim, 2015:125; Ryz, Remillard, Russo, 2017:212). 또한, 대마초로 알려진 대마 잎과 꽃대 윗부분은 통증 완화, 기침, 진통제, 이뇨제로 사용되었다(Han, Lee & Kim, 2016:246; Muutinenm, 2018:1-12). 대마는 마리화나(marijuana)와 헵프(hemp)로 구분되며, 마리화나는 마약으로 취급받지만, 헵프는 기름이나 섬유를 추출해 식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마는 CBD(cannabidiol)와 THC(delta-9 tetrahydrocannabinol) 함량에 따라 구분되며, THC 성분이 0.3% 이하일 때 다양한 산업용 대마로 발전할 수 있다. 이처럼 대마초는 신소재/바이오산업과 의료사업에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대마초 사용은 단순히 마약 중독 예방의 문제가 아니라 대마 산업과도 연관되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마 사용 자체는 위법으로 볼 수 없으나, 대마를 남용하거나 오용하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대마초 사용을 비범죄화한 나라는 195개국 중 9개국에 불과하며, 미국의 경우 워싱턴 DC를 포함해 35개 주에서 기호용 대마초가 합법화되었다(Nature and Bloom; The Cannigma). 대마초 사용의 비범죄화가 확대됨에 따라,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마약류 사용과 관련된 가장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대마초 사용의 비범죄화이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대마 남용 성인 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 약 2억 9천2백만 명으로, 이는 지난 10년간 약 20% 증가했으며, 세계 성인 인구의 약 5%에 해당한다. 특히,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서는 청소년 15세부터 24세 사이의 인구 중 대마 남용 인구가 19.2%에 이른다고 보고하였다. 기호용 대마초에 대한 합법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대마 사범 수가 2019년 처음으로 2,000명을 돌파한 후 2023년 4,08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법무부, 2024:130). 대마초, 대마 카트리지 등 대마 관련 마약류의 오·남용은 2010년 1억 7,000만 명에서 2020년에는 23% 증가하여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법무부, 2023:67).

대마를 비범죄화하는 나라보다 범죄화하는 나라가 더 많으며, 의료용 대마초 사용 역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대마초 사용 규제는 1965년 주한미군의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로 시작되어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을 통해 대마초 단속이 강화되었다. 현재는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대마초 및 관련 제품을 규제하고 있으며, 대마초 흡연, 섭취, 수출입, 소지는 형사 처벌을 받는다(이영미, 2016:134-136; 조석연, 2017:103). 의료용 대마는 오랫동안 불법으로 규제되었으나, 2018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었고, 2020년 경상북도와 안동시 일부 지역이 대마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다. 또한, 농업진흥청에서는 섬유 생산용으로 개발된 대마 품종 ‘청삼’을 산업, 식품, 의약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대마초 사용이 불법이지만, 합법화된 국가로 출국하여 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국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영국, 프랑스, 브라질 등 11개 지역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마를 남용한 사람은 남용하지 않은 사람보다 정신질환 발병률이 3배 높고, 매일 대마를 사용한 사람은 발병률이 4배 높다(UNODC, 2022). 대마초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 범죄의 확산과 재범 예방을 위해, 법무부는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류로 진입하게 되는 과정을 명확히 분석하고 이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마초 사용자가 강성 마약류 사용자로 전환하는 과정과 그 내용을 사례 연구를 통해 분석하여, 대마초 합법화가 마약류 범죄를 줄이고 중독 문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기존 이론(Crandall, 2002:183-195; Wilson et al., 2021:105)을 재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마초 비범죄화가 환경적, 개인적 측면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기호용 대마초 사용에 관한 논의는 EU와 스페인 등에서 격렬한 정치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EMCDDA, 2021), 한국에서는 대마초 합법화에 따른 형법상의 실효성 방안(전보경, 2014:224), 국민 건강 차원에서의 신중론(정도희, 2021:20), 대마초 합법화 과정 및 쟁점 비교분석 연구(박진실, 2017:245-274; 조석연, 2017:101-115; 허경미, 2017:241-268; 허경미, 2018:291-316) 등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대마초 사용자가 강성 마약류 사용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맥락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대마초 사용 경험이 있는 13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수행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법무부 차원에서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차단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마초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정 차원에서 마약류 중독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대마초 비범죄화와 관련된 논의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제시한다.

1. 대마초 사용자가 강성 마약류 사용으로 전환하는 과정과 내용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대마초 사용 장애(CUD: cannabis use disorder)

대마초 사용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마초 사용 장애(CUD)이다. 대마초 사용 장애는 전 세계 대마초 사용자 1억 9,300만 명 중 약 10%에 영향을 미치는 과소평가된 위험이다(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2021). 개인 및 공중보건에 미치는 부담은 다른 약물 사용보다 적지만, 대마초 사용의 높은 전 세계적 유병률로 인해 약물 사용 장애로 치료받는 사람 중 상당수를 차지한다. 대마초가 정신적, 신체적 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대마초 사용을 중단하지 못하는 것으로 광범위하게 정의되며(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8), 2016년 통계에 따르면 2,210만 명(인구 10만 명당 289.7건)이 CUD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egenhardt et al., 2018).

미국을 대표하는 전국적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CUD가 있는 경우 기분 장애,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및 성격장애의 위험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asin et al., 2016:1235-1241). 대마초 사용은 고소득 국가에서 사용률이 높으며(Peacock et al., 2018:1905-1926),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국가에서는 사용률이 낮았지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Carvalho et al., 2019:256-265).

2. 관문 이론을 중심으로

대마초를 통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이론적 근거로 가장 유력한 학설은 관문 이론(Gateway Theory)이다. 관문 이론은 약물 사용이 술과 담배와 같은 가벼운 합법적 약물의 소비에서 시작하여 대마초 사용으로 이어지고, 대마초 사용이 마약이나 다른 불법 약물의 소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Choom, Roh, Robinson, 2008; Deza, 2015:553). 따라서 대마초는 합법 약물과 강성 마약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하며, 대마초를 사용한 사람들은 다른 불법 약물을 사용할 위험이 3.5배에서 140배

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Fergusson & Horwood, 2000:508). 그러나 1977년부터 2017년까지 호주, 미국, 뉴질랜드에서 총 10만 2,461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마초를 사용한 사람들이 아편계 약물과 다른 불법 물질을 사용할 위험성이 높지만,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 증거의 질이 낮다는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Wilson et al., 2021:108). 대마초 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대마초 사용과 충동성에 있어 대마를 비범죄화한 주와 범죄화한 주 사이에 차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Destrée et al., 2018:79), 대마초 합법화가 대마초 가격 하락과 암시장의 축소로 이어져 다른 불법적 행동으로 이어질 위험이 줄어든다고 주장한다(Csémy & Nešpor, 2022:107-113). 그러나 대마초 사용이 청소년들에게 특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도 존재한다(Melberg et al., 2010:230-233). 대마초를 합법화한 국가에서는 젊은이들의 대마초 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약물 사용이나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은 하위 청소년 그룹에서 대마초의 관문 효과가 더 두드러진다고 보고되고 있다(Imtial et al., 2023:202-203; O'Grady et al., 2022:125). 미국과 기타 고소득 지역에서는 대마초 중독자가 대마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헤로인과 코카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훨씬 높으며, 첫 대마 사용 연령이 빠르고 자주 사용할수록 다른 불법 약물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Peacock et al., 2018:195-1926; Carvalho et al., 2019:256-258).

한국은 2018년 이후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는 기호용 대마초는 물론 의료용 대마초 사용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마초 사용의 비범죄화가 범죄를 줄이고(Grandall, 2002:190), 대마초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개인의 행복 추구를 위한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대마초의 유해성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대마초 사용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으로 발전하는 과정과 그 내용 및 맥락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참여자의 경험과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 방법은 ‘어떻게’와 ‘왜’라는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에 적합하며, 독특한 기술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현상을 경험적으로 발견하는 데 유용하다(Merriam, 2009; Yin, 2018/2021). 또한, 사례연구는 맥락과 분리될 수 없는 통합체로서, 경계가 있는 체계 내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중요한 요소

들을 맥락 안에서 연구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Lincoln & Guba, 1985). Creswell과 Poth(2018)는 사례연구 접근이 ‘경계를 가진 체계’에 대한 탐구이며,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분석’을 통해 공통점을 발견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접근을 따라, ‘대마 사용자의 강성 마약 진입 과정’을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가진 체계로 규정하고, 모집한 연구 참여자들을 사례로 선정하여 각 사례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사례 내 분석과 사례 간 비교 분석을 통해 공통성과 차이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자는 각 사례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밝히는 동시에, 그 속에서 드러나는 공통 과정을 설명하고, 사례의 맥락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주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1. 연구 참여자 선정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다양한 내용과 맥락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이 갖는 특성의 공통성과 특수성에 따라 기준을 설정한 후 선정 기준을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1월 15일까지 기준 표집(criterion sampling) 방법을 통해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마련하였다. 첫째, 대마초를 사용한 후 필로폰, 코카인, 헤로인 등과 같은 강성 마약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자. 둘째, 강성 마약을 사용한 후 중독에 이르러 일정 기간 사용을 지속한 경험이 있는 자. 셋째, 대마초 사용에서 시작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전환하며 다양한 부정적 정서를 경험한 자이다. 대마초와 강성 마약을 사용하지 않는 단약 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중독물질을 끊은 후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회복 기간을 2년에서 5년 정도로 보고하고 있음을 근거로 하였다(Whitfield, 1985:21-24; Sweeney & McGoey, 1990:333-337). 이러한 선정 기준을 바탕으로 NA의 참여자와 회복 지원 활동가의 소개를 받은 15명 중 연구 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나이는 연령대로, 직업은 자영업, 근로자, 무직으로 단순화하였으며, 그 외에 거주지와 형사처분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1> 연구 참여자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성별	연령	직업	단약기간	대마초 사용 연령	강성마약
연구 참여자1	남	40대	자영업	5년	22세	필로폰
연구 참여자2	남	40대	자영업	8년	24세	필로폰
연구 참여자3	남	50대	자영업	10년	31세	필로폰
연구 참여자4	여	40대	근로자	5년	21세	필로폰
연구 참여자5	남	30대	근로자	7년	22세	코카인
연구 참여자6	여	30대	무직	5년	26세	코카인
연구 참여자7	남	40대	근로자	6년	25세	필로폰
연구 참여자8	남	30대	무직	8년	22세	필로폰
연구 참여자9	남	30대	근로자	5년	21세	필로폰
연구 참여자10	남	20대	근로자	5년	20세	필로폰
연구 참여자11	여	30대	근로자	6년	22세	코카인
연구 참여자12	여	40대	자영업	11년	21세	필로폰
연구 참여자13	남	20대	근로자	5년	18세	필로폰

2.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 참여자 13명과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심층 면담은 1~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1회 면담 시간은 50분에서 9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이 끝난 후 후속 면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이후 후속 면담 진행에 동의를 받았다. 자료수집은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4월 10일까지 이루어졌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는 심층 면담 전 연구 참여자들에게 비밀과 사생활 보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자발적 동의를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면담 중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환경을 조성하였고, 모든 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되었다. 녹음된 면담 내용은 이후 전사하여 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의 면담 내용은 다음과 같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대마초 사용 시작 동기 및 배경’, ‘대마초 사용 경험과 그로 인한 변화’, ‘강성 마약 사용으로의 전환 과정’, ‘강성 마약 사용 경험 및 중독 경험’, ‘대마초와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인한 부정적 정서 및 경험’ 등이다. 면담 내용은 연구의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분석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과 그로부터 도출된 공통적 주제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심도 있게 이해하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자료 수집 방법은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대마초 사용과 강성 마약 사용 간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심층 면담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전체적인 구조로 파악하기 위해 개인별 녹취록을 5회 정독하였다. 이를 통해 참여자들의 경험의 흐름과 주요 사건을 이해하고, 핵심 주제를 도출하였다(Merriam, 2009). 둘째, 핵심 내용분석을 위해 심층 면담 자료 중 대마초 사용과 강성 마약을 접하게 된 계기와 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구술 내용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주제를 구성하고 이를 압축하여 제시하였다(Yin, 2018/2021). 셋째, 주제 범주화를 위해 개별적으로 압축된 주제를 보다 고도화된 차원에서 범주화하였다. 이를 통해 각 주제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주요 범주를 식별하였다(Lincoln & Guba, 1985). 넷째, 분석 단위 재배열을 위해 주제 범주를 '강성 마약 사용 계기'와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및 유지'라는 두 가지 분석 단위로 재배열하였다. 강성 마약 사용 계기는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Whitfield, 1985:21-24). 다섯째, 대마초 사용과 강성 마약 사용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주제 범주를 중심으로 논리적 다이어그램을 재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조와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맥락을 규명하였다(Merriam, 2009; Lincoln & Guba, 1985).

위와 같은 분석 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마초 비범죄화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4. 연구 윤리적 문제와 엄격성

질적 연구를 다수 수행한 경험이 있는 연구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근거하여 윤리 지침을 구성하고 이를 준수하였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였으며, 둘째,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불이익을 고지한 후 서면 동의를 받았다. 셋째, 심층 면담 진행 중 연구자의 동의나 승인 없이 언제든지 연구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공지하였다. 넷째, 자료의 보강과 필기 등 모든 절차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에 따랐다. 연구 참여자들은 녹음 파일은 문서번호로 전환한 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문서 본 역시 연구가 종료된 후 폐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연구자는 이러한 요구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사례 연구의 엄격성을 제고하기 위해 Yin(2018)이 제시한 사례연구 타당성 제고 전략을 따랐다. Yin(2018)은 연구 문제와 연구 결과 간의 설명 전략을 통해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사례 비교를 통해 분석적 일반화를 추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자는 서론에서 연구 문제를 명확히 하고, 논리적 다이어그램을 이용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동태적 과정을 설명하였다. 마지막으로 논의에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분석적 일반화를 추구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법과 윤리적 준수를 통해 연구자는 대마초 사용이 강성 마약 사용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마초 비범죄화와 관련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다음호에 이어서

홍천희망센터 개관식 개최



- 일시·장소** 3. 17.(금) 14:00, (주)세준F&B(강원 홍천군)
- 참 석 자**
- 법무부 : 차관, 기조실장, 본부장, 대변인, 직업훈련과장
 - 초청인사 : 유상범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홍천군수, 홍천군의회 의장

2025년 2월 우수 수사관 및 정보관 증서 수여식



- 일시·장소** 3. 24.(월) 11:20, 교정본부장실
- 주요 내용** 경북북부제1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박종범
광주교도소 특별사법경찰팀 교위 이진호

전자적 송달 관련 소송서류 업무 담당자 워크숍 개최



- 일시·장소** 3. 21.(금) 09:00, 법무연수원(진천본원)
- 참 석 자** 교정본부 교정관 김상원 등 65명
- 주요 내용** 각 교정기관의 소송서류 업무 처리 방식 공유
전자적 송달 구축 시 필요 기능 등 논의 등

산불대응 관련, 교정기관 현장 방문



- 일시·장소** 3. 27.(목) 14:30, 경북북부교정시설, 안동교도소
- 참 석 자**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교정본부장 등
- 주요 내용** 지역 산불 발생 관련, 산불대응현장 및 수용관리 현황 점검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박소영

작업장 담당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지난 3월 11일 교도작업 및 운영지원 작업장 담당자 38명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안전사고 사례 및 예방교육, 안전의식 고취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진행됐다.



서울구치소 | 교위 임완섭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서울구치소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3월 10일 경기도 의왕시 소재 장애인 복지시설인 녹향원에서 시설 주변 환경 정리 등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이인수 교화분과 교정위원 등 5명의 교정위원과 3월 정기 가석방 적격심사 신청 수형자 10명이 참여했다.

안양교도소 | 교사 현민준

인근 고교에 교정장학금 후원

안양교도소는 지난 3월 18일 인근의 모락고등학교와 평촌과학기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명에게 교정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장학금은 안양교도소 직원들이 저소득 가정 가문 데 학업에 대한 열의가 높은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한 성금으로 마련됐다.

수원구치소 | 교사 안태진

인권감수성 강화 위한 인권교육 실시

수원구치소는 지난 3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다양한 인권존중 방안을 학습하고 인권존중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는 기회를 가졌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위 유희지

청렴·반부패 등 표어 공모전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반부패,

감질 근절 등 6개 주제의 표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후보작들은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직원식당 앞에 게시됐다. 한편 최종 선정된 표어는 서울동부구치소 청사 전광판 송출과 크로샷 발송 시 활용된다.

인천구치소 | 교위 이동훈

범무생 사진 현행화 작업 진행

인천구치소는 지난 3월 17일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범무생 사진 현행화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개인 사진이 제급과 맞지 않거나 오래되어 식별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 직원 확인 등 업무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실시됐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도 이성환

석해은 스님 등으로부터 기부 받아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3월 20일 해은정사 석해은 교정협의회 회고문과 국제불다자비평화봉사단으로부터 600만 원을 기부 받았다. 1988년부터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석스님은 평소 종교상당 및 교화공연을 통해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및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오근섭

‘언론인 참관 및 수용생활체험’ 실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3월 25일 언론인 대상으로 구내 시설 참관 및 일일 수용생활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연합뉴스 기자 등 여성 언론인은 이번 참관 및 체험을 통해 교정공무원의 노고와 교정행정의 기능 및 역할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한창우

화이트데이 기념해 여직원 격려 나서

의정부교도소는 지난 3월 14일 화이트데이를 맞아 여직원들

에게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박진열 소장은 이날 조과밀 수용 환경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여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처우개선을 위한 필요 물품과 함께 당근케이크(1인1개)를 선물했다.



여주교도소 | 교사 남형인

인권 강화·감질 근절 위한 교육 실시

여주교도소는 지난 3월 20일 인권 강화 및 감질 근절 교육을 실시했다. 인권 강화 교육은 ▲주요 인권침해 권고사례 전파 ▲교정시설 내 인권 보호 방안 등을 다뤘으며, 감질 근절 교육은 ▲감질 여부 판단 기준 ▲건전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 방안 등을 다뤘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위 정한길

교정직 신규 교육생 대상 참관 행사 진행

서울남부교도소는 지난 3월 17일 법무연수원에 입교한 교정직 7급 신규 교육생 40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정시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직접 체험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춘천교도소 | 교도 남윤성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참관 행사 진행

춘천교도소는 지난 3월 11일 국가인권위원회 강원인권사무소 장 조형석 등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수용자의 인권 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여 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자 진행됐다.

원주교도소 | 교도 이동환

드론 테러 대비 위한 합동 FTX훈련 실시

원주교도소는 지난 3월 20일 국가중요시설내 드론 폭발테러 발생에 대비한 '2025 유관기관 합동 FTX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에는 원주교도소 자체방호중대 및 자위소방대 유관기관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테러 방지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현장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강릉교도소 | 교위 채동용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강릉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3월 21일 강릉시 옥계면에 위치한 금진항에서 환경정비를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에는 3월 정기 가석방 신청 수용자와 직원 등 9명이 참여했으며, 금진항 해양쓰레기 수거 등 주변 환경정비를 통해 심성 순화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다짐했다.

영월교도소 | 교사 김한

8087부대원에 교정시설 이해 제공

영월교도소는 지난 3월 18일 8087부대원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8087부대원들은 교도소에 대한 시각을 새롭게 정립하고 국가중요시설인 교도소의 보안시스템을 직접 확인하며 교정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사 성명제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시찰

강원북부교도소는 지난 3월 20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신혜 속초지청장 및 검사 등 관계자 4명의 방문을 받았다. 이번 시찰은 중앙통제실, 수용동 등 교정시설 전반을 둘러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와 양 기관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도 박세영 도주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지난 3월 24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과 합동으로 도주사고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총 40명의 직원이 참여한 이번 훈련은 출정 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수용자 도주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 간의 상호 협조를 강화하고,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진행됐다.

소망교도소 총무과 | 주임교도관 박성호 수형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소망교도소는 지난 3월 19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진행했다. 대한적십자사와 함께한 이번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즉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응급처치 기술을 익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실시했다. 진주교도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 관련 법규 준수와 실천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마련됐다.

대구구치소 | 교사 광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참관

대구구치소는 지난 3월 17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구지부 및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대구지부협의회 소속 직원과 위원 36명을 대상으로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참관인들은 "법무보호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송상헌 보라미 봉사단 봉사활동 실시

김천소년교도소 보라미 봉사단은 지난 3월 5일 '베다니 성화원'을 방문해 환경미화 및 주변 정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출소를 앞둔 수용자 11명이 이번 봉사활동에 참여,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강당과 식당을 청소하면서 사회일원으로서의 보람과 사회복귀에 대한 열의를 되새겼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손민성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지난 3월 17일 한지 특채 신규임용 공무원 10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모선호 소장은 이날 신규공무원을 맞이하며 "공직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기 바란다"면서 "교도관으로서의 첫걸음을 응원한다"는 말로 환영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우동우 보라미 봉사단, 봉사 통해 사회복귀 의지 제고

울산구치소는 지난 3월 17일 울산 중구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복지관 내 식당 업무를 돕고 주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재식 교정협의회장은 "이번 노인복지관 봉사활동이 사회복귀를 앞둔 수형자들의 재사회화를 위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양혁모 교도관 체포호신술 실시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지난 3월 13일 전 직원 대상으로 체포호신술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고 체포호신술을 반복 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난동 상황 발생 시 직원 폭행 피해를 방지하고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수용 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안동교도소 | 교도 이성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행사 참여

안동교도소는 지난 3월 4일 직원들의 건강 증진과 보다 나은 직장 환경 조성을 위해 안동보건소에서 시행한 '금연클리닉' 행사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안동보건소 금연상담사가 안동교도소 청사 회의실을 방문, 직원들과 상담하며 금연 보조제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위 황인옥 신규 임용 전입자 환영행사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지난 3월 4일 9급 교정직 신규 임용 직원에 대한 환영 행사를 개최했다. 임유정 소장은 이날 "주변 선배에게 가르침을 받으면 업무 적응에도, 추억 쌓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교도관의 길을 걷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김태도 부패취약분야 종사자 대면 교육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 3월 11일 관련 업무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청탁 금지법 및 공직자의 이해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총무과장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공무원의 행정명령 위반 금지, 갑질 근절 등 공직자로서의 올바른 근무 자세에 대해 안내했다.

대구교도소 | 교위 오진석 2024년 SNS 홍보 우수기관 선정

대구교도소가 2024년도 법무부 SNS 홍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지난 3월 4일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법무부장관 상장 및 부상을 수여받았다. 대구교도소는 지난해 7월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을 개설, SNS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손태우 고위직 대상 통합 교육 실시

부산구치소는 지난 3월 17일 고위직을 대상으로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한 통합교육을 실시했다. 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홍의섭 전문강사가 강연한 이번 교육은 '인식의 전환을 통한 문제에 접근하기'·'성인지감수성 향상' 등의 내용을 다뤘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문현배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 업무협약식 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지난 3월 13일 주왕산국립공원사무소와 수형자 교정교화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계기로 양 기관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자연 보호의 식 함양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창원교도소 | 교위 김난희 중대재난 대응훈련 실시

창원교도소는 지난 3월 13일 중대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작업장 내 화재발생을 가정하고 실시된 이번 훈련은 유사시 자위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 응급환자 이송 및 수용자 도주 차단에 대한 실전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부산교도소 | 교위 고병우 '사랑의 손잡기 운동' 실시

부산교도소는 지난 3월 17일부터 21일까지 '사랑의 손잡기 운동'을 실시했다. 해당 운동은 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을 기반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을 방문해 고충 상담과 후원금 지원 등을 진행하는 활동이다. 부산교도소는 분기마다 4가정을 방문, 꾸준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포항교도소 | 교사 예병웅 신규공무원 임용식 개최

포항교도소는 지난 3월 4일 신규 임용 공무원 8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규성 소장은 이날 "교정직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노력하길 바란다"면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도움을 청하라"는 말로 응원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정연근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진주교도소는 지난 3월 4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경주교도소 | 교위 허준녕

통합방위 합동훈련 실시

경주교도소는 지난 3월 13일 육군 제50사단 등 민·관·군·경·소 방 관계 기관과 함께 통합방위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2025년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일환인 이번 훈련은 관계 기관의 협조와 공조 체계 구축을 위해 진행됐다.



통영구치소 | 교위 이성민

우리쌀 아침밥 먹기 릴레이 서약 동참

통영구치소는 지난 3월 14일 'NH든든밥심예금'의 상품(3호 고객)에 가입했다. 'NH든든밥심예금'은 NH농협 통영시지부에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특판하고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면 우리쌀이 적립된다. 판매 종료 후 적립된 쌀은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될 예정이다.

밀양구치소 | 교위 김영근

직원 대상 '음주운전 예방교육' 실시

밀양구치소는 지난 3월 20일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 경남지부 정은지 강사의 강연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통해 밀양구치소의 직원들은 음주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상주교도소 | 교사 황봉기

외부의료시설 수용자 도주사고 대비 훈련

상주교도소는 지난 3월 19일 상주적십자병원에서 진료 중이던 수용자의 도주 상황을 가정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외부 의료시설 계호근무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실시됐다.

거창구치소 | 교도 방준철

화재 대비 자체 소방 훈련 실시

거창구치소는 지난 3월 1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화재 대비 자체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화재 발생 상황을 가상하고 위탁 작업장 등에서 진행된 이번 훈련은 신속한 출동을 통해 수용자의 대피를 유도했다.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기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실제상황에서 대응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또한 이번 훈련에서는 대응 상황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대응체계 개선책이 공유됐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도 이지은

소란·난동 진압 훈련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수용자 소란·난동 상황에 대비한 진압 훈련을 지난 3월 19일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흥기를 소지한 수용자 2명을 제압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됐다. 청주여자교도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을 설정한 실전형 훈련을 통해 교정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공주교도소 | 교사 정조원

임무교도대원 북카페 개관

공주교도소는 지난 3월 11일 임무교도대원센터 내에 북카페를 개관했다. 이번 개관으로 대원들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됐다. 이에 공주교도소는 최근 '나의 인생 명언' 공모전을 진행하고, 임상한 대원들에게 특별외박을 부여하는 등 격려의 시간을 제공했다.

충주구치소 | 교사 배주경

양성평등 및 4대 폭력예방교육 실시

충주구치소는 지난 3월 11일 '양성평등 및 4대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충주 YWCA가정폭력상담소 소장의 강연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양성평등사회로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계기를 가졌다.



홍성교도소 | 교도 이재진

행복한 직장 만들기 위원회 개최

홍성교도소는 지난 3월 19일 '행복한 직장 만들기 위원회'를 개최,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는 ▲이달의 격무부서 선정 ▲청간주인공 대상자 추천 ▲각 부서의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사 구자호

전 직원 대상 보안교육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지난 3월 6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보안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 유출 사고사례를 공유하고, 보안 사항의 외부 누설금지 및 관련 처벌 규정을 안내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위 박효진

사랑의 손잡기, 서산성봉학교 방문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지난 3월 11일 서산성봉학교에 '사랑의 손잡기'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사랑의 손잡기'는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어려운 환경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서산지소는 앞으로 1년간 매월 20만 원씩 서산성봉학교 학생 2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전용배

FS/TIGER 통합방위훈련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지난 3월 11일 FS/TIGER 통합방위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논산지소 자위방범대를 비롯하여 3585부대, 논산 경찰서 및 소방서, 논산 시청 등 5개 기관이 참여했다. 이번 훈련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비상상황 시 대응능력을 키우기 위해 실시되었다.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현도

청장 주재 교정기관장 회의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지난 3월 12일 모세훈 청장 주재의 교정기관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교정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추진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모 청장은 소속 기관장들을 격려하며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 교위 송인혁

대전지검 공판부 검사 등 방문

대전교도소는 지난 3월 5일 대전지검 검사 및 형집행정지 자문위원 등 8명의 방문을 받았다. 방문단은 이번 방문을 통해 교정시설 의료과의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확인했으며, 수용 인원 조정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청주교도소 | 교위 송화섭

보라미 봉사단, 지역사회 나눔 실천

청주교도소 보라미봉사단은 지난 3월 17일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잡곡과 수물을 제거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 수형자들의 정서 함양과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된 이번 봉사활동에는 수형자 11명을 비롯, 교정위원 5명과 직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지현

유관기관 통합방호훈련 실시

천안교도소는 지난 3월 20일 유관기관과 함께하는 통합방호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장우영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지난 3월 18일 타 입주 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실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청렴 실천 내가 먼저" 슬로건 아래 반부패 청렴 홍보물을 배포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광주청은 이를 통해 청렴한 교정기관 이미지 확산 등 교정홍보에 기여했다.

광주교도소 | 교도 김거현

3월 월례회 및 직장교육 진행

광주교도소 지난 3월 4일 월례회를 개최했다. 업무실적 및 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모범직원 및 격무부서를 시상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박삼재 소장은 "광주교도소 직원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교도소 | 교위 조연호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개최

전주교도소는 지난 3월 4일 소속 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청렴 실천 및 음주운전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및 음주운전 근절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실시됐으며, 행동강령책임관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서약서를 징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순천교도소 | 교위 신광식

보안과 복도(미결팀)에 벽화 설치

순천교도소 보안과 미결팀의 사무실 앞 복도에 벽화가 설치됐다. 그 결과 다소 어두웠던 복도가 숲 들한곳이 있는 장소로 탈바꿈했다. 이 화가는 "저의 작은 재능이 수용자의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안정, 수형자의 교정교화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준휘

외부병원도주사고 대비 출동훈련 실시

목포교도소는 지난 3월 12일 외부병원도주사고 대비 출동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도주 사고 발생 시 직원들의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상황발생 시 보안과 상황관리팀의 지휘 통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군산교도소 | 교도 이주민

'헌혈'로 사랑 나눔 실시

군산교도소는 지난 3월 6일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단체 헌혈을 실시,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 자발적으로 헌혈에 동참한 직원들은 "온정을 나누는 헌혈 봉사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교도소 | 교도 유상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교도소 참관

제주교도소는 지난 3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장 등 관계자 18명에 대한 참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참관은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출소자 재범 방지를 위한 협업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장흥교도소 | 교위 윤창열

신규 교정공무원 임용식 진행

장흥교도소는 지난 3월 4일 열린 월례회에서 신규 9급 교정공무원 4명에 대한 임용식을 진행했다. 이성하 소장은 "교정공무원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을 환영한다"면서 "교도관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매사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해남교도소 | 교사 안창수

육군 제31사단과 '통합방위 발전방안' 협의

해남교도소는 지난 3월 19일 이일용 제31보병사단장과 합동 훈련 활성화, 업무교류 촉진 등 통합방위작전에 대해 논의했다. 윤대하 해남교도소장과 이 사단장은 이날 "양 기관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유사시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협력하겠다"며 뜻을 모았다.



정읍교도소 | 교도 김대현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

정읍교도소는 지난 3월 12일 민·관·군·경·소방 통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전시에서 야기되는 적 침투에 대비한 '비상동원 태세', '교정시설 방호태세' 확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으며, 이로써 지원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각 기관의 수행능력을 숙달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모범 공무원

서울남부교도소 | 교감 권오영

권오영 교감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교정사고 방지를 위한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다. 2001년 직업훈련과 근무 시 거래업체로부터 받은 선물을 돌려보낸 사안이 알려져 '청렴실천직원'으로 선정되는 등 직무를 청렴·성실하게 수행했다. 또한 1종대형면허를 취득해 운전 근무자가 부족할 때 운전 업무를 지원하는 등 항상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성실히 근무했다.



대구구치소 | 교감 안영기

안영기 교감은 지난 2월 20일 대구지방법원 법정에서 발생한 교정사고를 예방했다. 이날 불구속 피고인이 재판장 앞으로 고성을 지르며 뛰쳐나가자 즉시 이를 제지, 불안정한 상황을 진정시키며 교정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건은 법정 내 질서 유지와 교정 사고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대전교도소 | 교도 김지환

김지환 교도는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접수한 수용자 100명의 형집행정지희서를 검토하던 중형 확정처리 업무에서 발생한 미결구금일수 산입 계산의 실수를 발견했다. 보석기간을 제외하며 미결구금일수 산입을 해야했지만 잘못 지휘한 사실을 확인, 이에 대전고등검찰청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후 정정된 지휘서를 접수하는 등 조기석방을 미연에 방지했다.



장흥교도소 | 교감 최현중

항상 밝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선·후배들간에 화합에 앞장서는 최현중 교감은 매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선·후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남다른 책임감으로 총무과 업무를 총괄하며, 장소변경접견업무를 진행할 때는 수용자의 가정환경 등을 최대한 고려함으로써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월간 교정’과 함께하는 초성퀴즈 이벤트

초성퀴즈 도전하고,
교정의 가치를 함께 나눠요!

‘춘천교도소’는 서대문형무소 춘천지사로 개칭됐다가
춘천형무소로 승격한 뒤 ‘지금의 이름’을 얻게 됐다.
그렇다면 춘천교도소의 첫 정식 명칭은 무엇일까?

힌트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춘천교도소는
1908년 일본 통감부의 ‘감옥 분감 설치령’에 따라 설치,
강원도 지역의 3·1 운동 참가자들이 수감되기도 했다.

가 사 가 오 첫 첫 번 가

correct2023@naver.com로
정답과 연락처를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월간 <교정>이 교정 관련 논문을 모집합니다.
교정행정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교정행정과
관련된 모든 주제

종류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회 논문, 학술지 논문

제출
방법

월간 <교정> 편집팀 이메일
(correct2023@naver.com) 원고 송부

※ 제출 시 성명과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게재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